양천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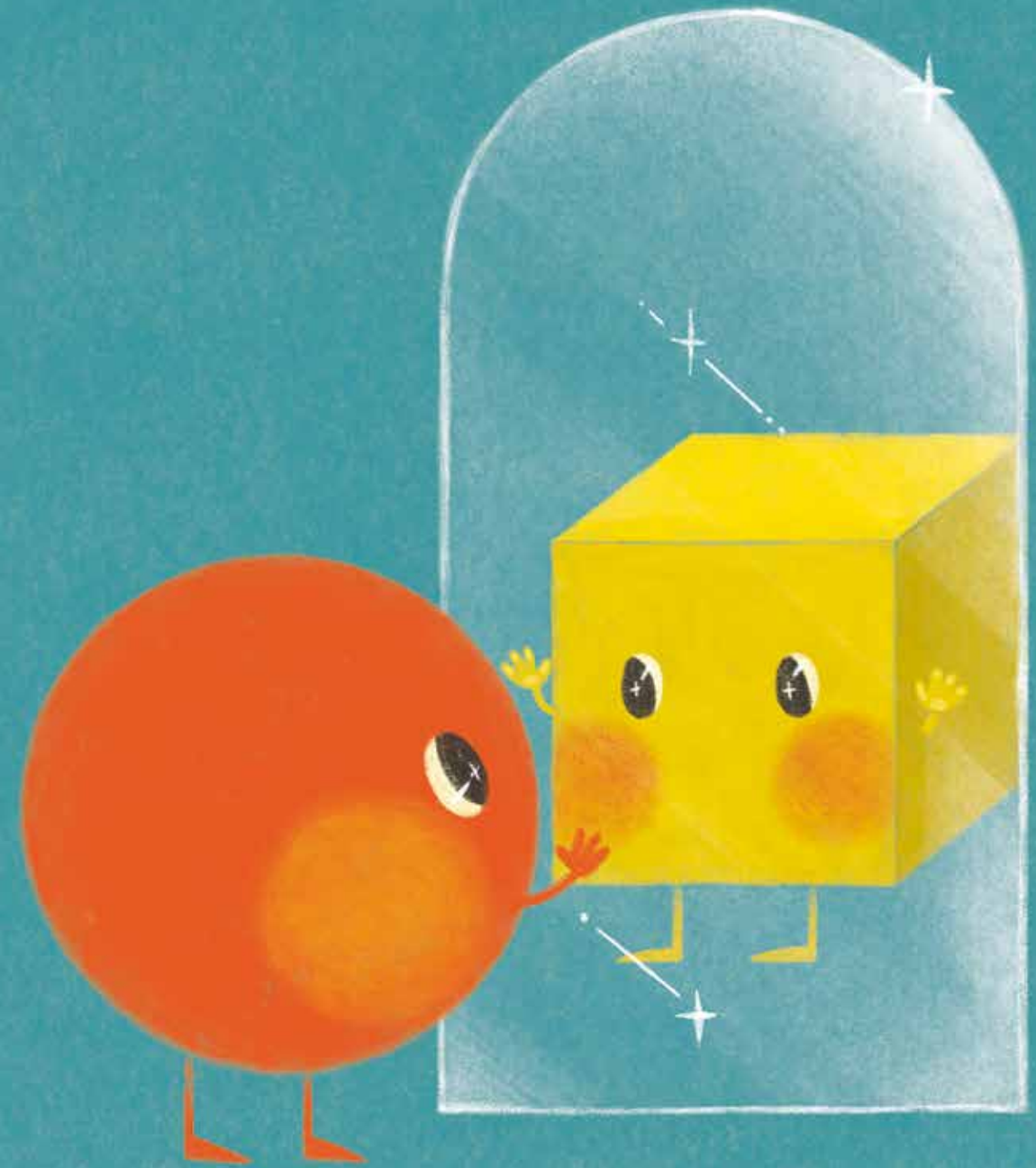
모양모양

Vol.4

모두의 양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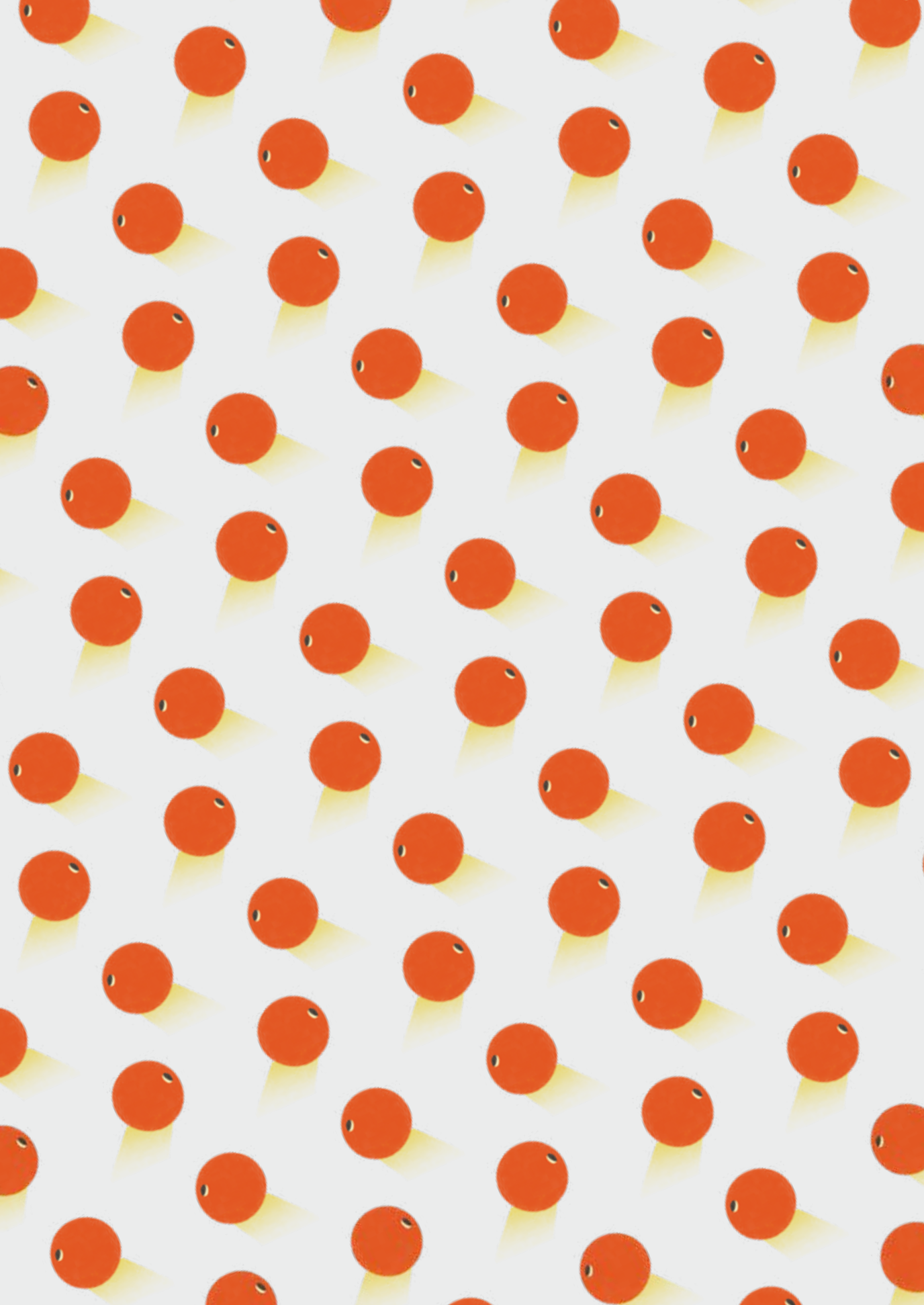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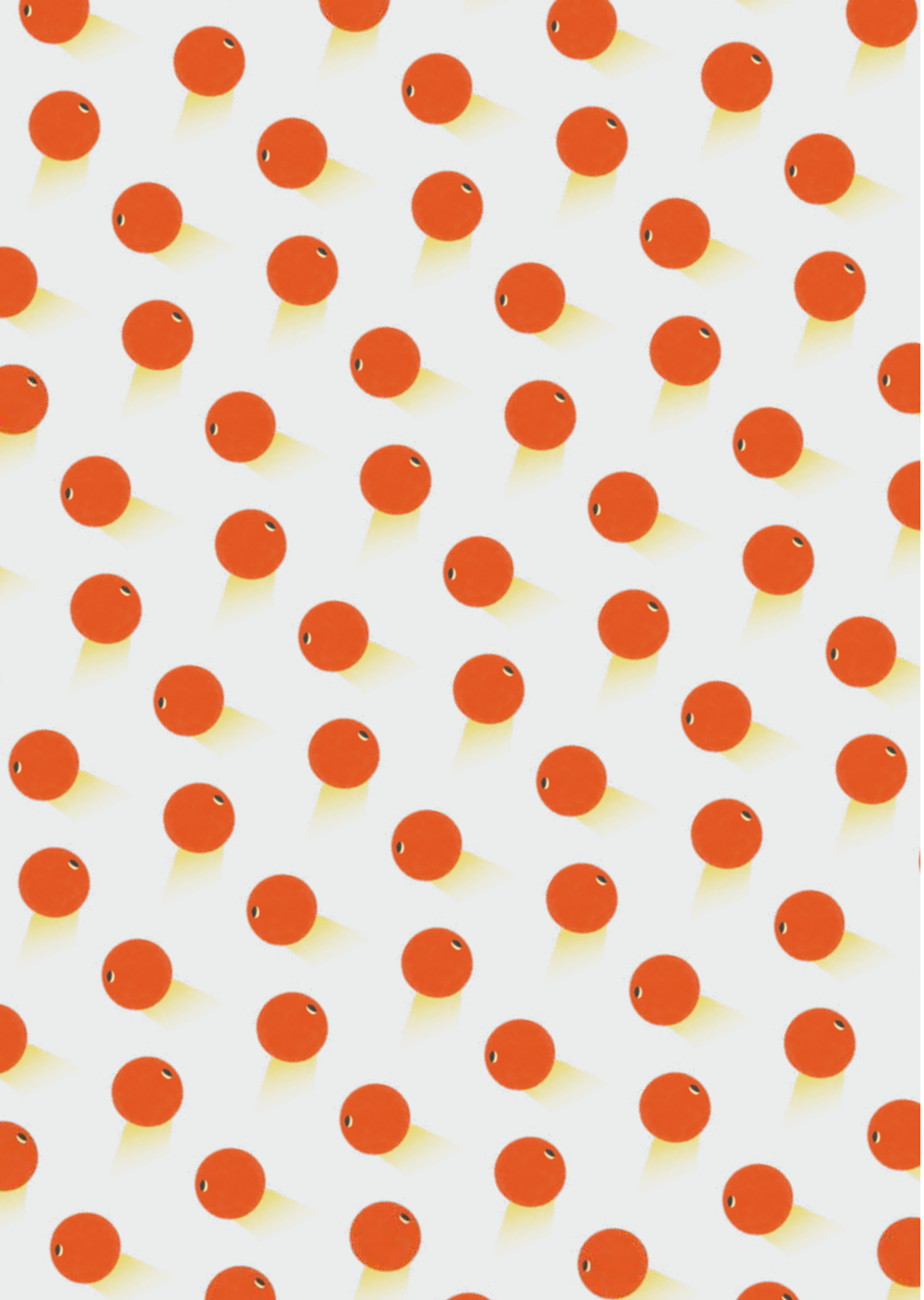
양천의 모양



모양모양 Vol.4

ISSN 2800-0455





‘모두의 양천, 양천의 모양’을 의미하는 <모양모양>은 양천문화재단이 발행하는 문화 매거진입니다.

양천의 모양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꿈꾸는 시간을 통해 수많은 가능성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담아내며, 양천의 사람들과 소중한 공간들, 그리고 양천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공유합니다.

여기와 너의 존재들

생각의 모양

6 **Editor's Letter**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새해에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것까지 살필 수 있는
사려 깊은 시선을 가지길 소망한다

Column
8 ### 가만히 있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예술을 바라보는 모순된 시선에 질문을 던지며
그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본다

삶의 모양

14 **Interview 1 관찰하고 상상하는 삶**
섬기는 마음에 관하여
인간의 믿음과 기도하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공현진(공씨) 작가와의 만남

24 **Interview 2 가치를 지키는 삶**
재료의 탐색, 예술의 확장
재료와 작품, 그 이면에 자리한 예술가의
책임감과 소신. 플라스틱에 이어 도자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조다솔 작가와 나눈 이야기

32 **Festival 함께하는 삶**
예술과 함께한 상상놀이
강서·양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모임 'MoMo(모모)'가 개최한
지역축제 <상상놀이>의 현장 스케치

공간의 모양

40 **View 힐링하는 공간**
고요의 계절을 즐기는 법
겨울의 향기를 음미하며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하기 좋은 사색의 공간으로 안내한다

46 **Architecture 조화로운 공간**
공공건축의 묘미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지며 주민들에게 훌륭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 양천공원 책 쉼터의
뛰어난 건축적 성취를 조명한다

54 **Space 자연을 느끼는 공간**
생동하는 자연을 마주보다
양천구에서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만날 수 있는 곳,
최근 새롭게 개관한 에코스페이스 연의

58 **SNS 공감하는 공간**
우리가 사랑한 계절
양천구 주민들이 SNS에 남긴 일상의 기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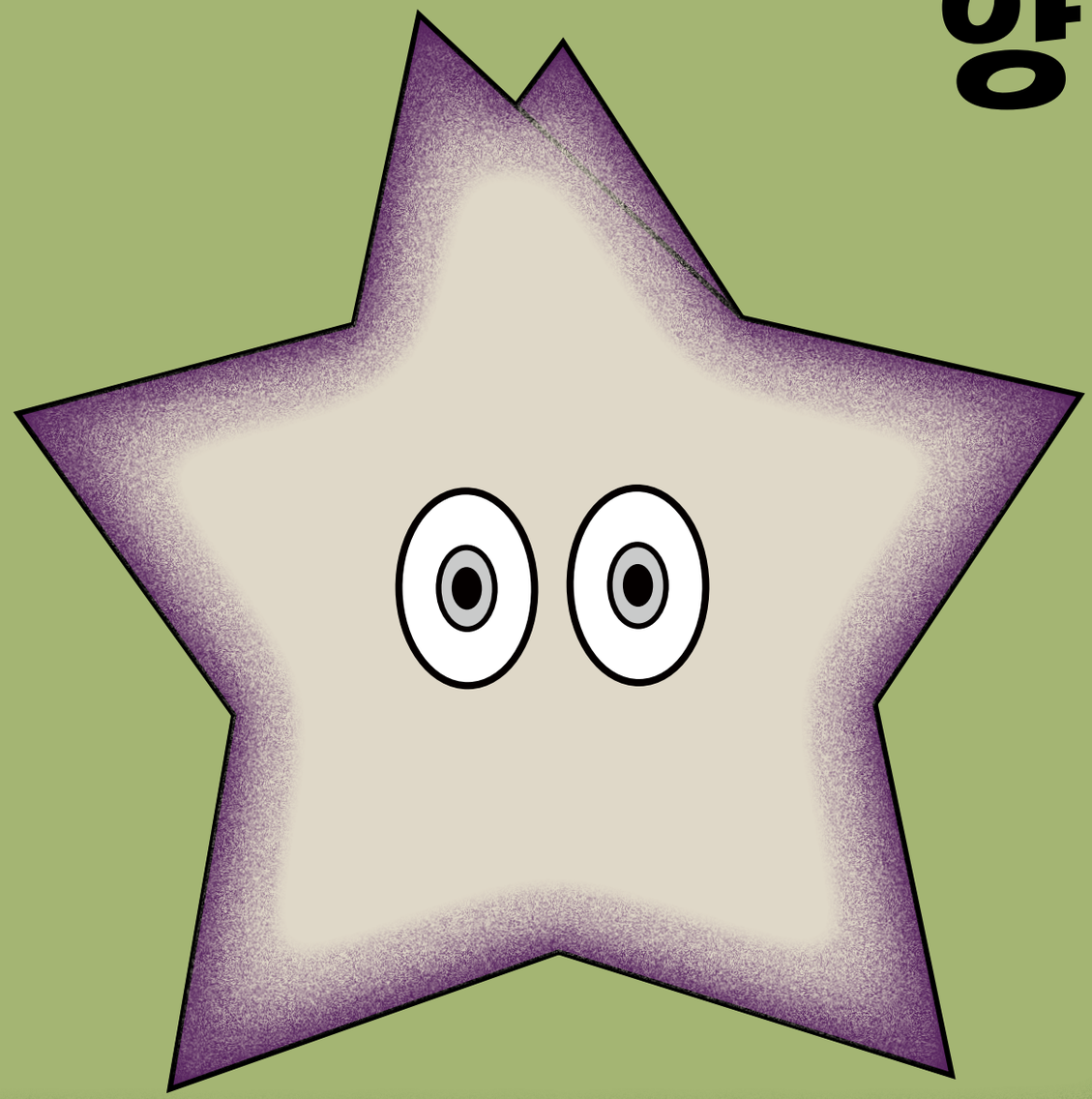
양천의 모양

62 **Yangcheon News**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이곳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며
동네를 새롭게 느껴가는 작업,
동네실험 프로젝트 <양천 모퉁이 클럽>과
일상매거진 프로젝트 <눈, 코, 입> 결과 공유회

68 **Focus**
따스한 공방의 시간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목동의 공방들

70 **Calendar**
양천·강서 문화 캘린더
12~3월 양천·강서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생각의 모양



Editor's Letter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새해에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것까지 살필 수 있는
사려 깊은 시선을 가지길 소망한다

Column

가만히 있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예술을 바라보는 모순된 시선에 질문을 던지며
그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본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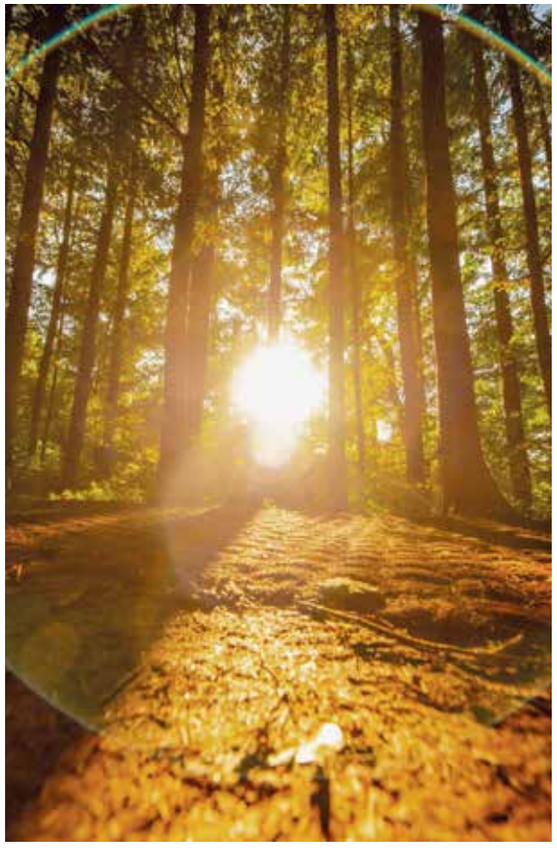


사진 _ 황규백

한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지금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었던 행간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 당시엔 몰랐지만 엄청난 배려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예술작품을 관람할 때도 종종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시각적으로 근사한 공연예술 작품을 감상한 뒤 시간이 흐를수록 무대 위 예술가가 전하고 싶었던 아름다움 이면의 메시지가 선연하게 다가오거나, 미술작품의 잔상이 오래도록 남아 눈으로 감상했던 것 이상의 세계를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다시금 공연장과 전시장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모양모양> 4호를 통해 만난 이들의 이야기 또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기와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생각의 모양'에서 윤단우 작가는 예술에 대한 인식과 그 역사적 맥락을 돌아보며 예술가들이 곧잘 받는 편견 어린 시선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삶의 모양'에서는 양천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예술가들, 공현진 작가와 조다솔 작가를 만났습니다. 재료의 물성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말하고 싶은 본질과 예술가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공동체 모임이 개최한 지역축제와 양천의 주목할 만한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들, 양천문화재단이 진행한 주민공모사업의 결과 공유회 소식까지 풍성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맘때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 관대해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것까지 살피는 사려 깊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글_ 안미영

가만히 있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예술계 시계를 정지시키는 현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예술과 예술가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선과 고민이 필요하다.

윤단우
작가. 칼럼니스트. 인터뷰어. 주로 공연을 보고 글을 쓰고 여자들을 만나며, 여자가 인간으로 사는 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기울어진 무대 위 여성들>, <여성, 신체, 공간, 폭력>, <꽃이 아니다, 우리는 목소리다>, <결혼파업,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등이 있다.

신비의 외투를 벗기고, 예술활동 그 너머를 본다면

예술이나 예술가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사회적으로 꽤나 견고하다. 예술가는 재능을 타고난 천재이고 그가 구사하는 예술적인 표현이나 결과물은 그만의 순수하고 독창적인 것이며, 그로 인해 탄생한 예술은 상식이나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성한 그 무엇이라는 식이다. 초월성을 주장하는 미학자나 예술을 정전화하는 아카데미는 예술에 대한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는 공범들이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사회학과 예술은 짝이 안 맞는 희한한 한 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예술이 영원보편성을 획득하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일어났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의 목적을 가시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일상의 구체적인 것 속에서 포착될 수 있는 사회적 현실을 재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자본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예술의 '순수성'은 주로 '상업성'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예술, 혹은 예술가가 현실사회와 유리된 초월적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업성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귀결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예술가에게서 예술이라는 신비의 외투를 벗겨내고 다시 질문해보자. 예술가들이 발 딛고 있는 예술이라는 대지는 사회의 공기가 닿지 않는 무중력 공간인가? 생활인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은 현실의 작동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사회의 일원인 예술가는 자신이 몸담은 사회에 대해 발언하거나 그 단면을 포착해 예술 안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가? 예술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의 그것처럼 순정함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가?

정지된 예술로는 무엇도 애도할 수 없다

비극 앞에서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난 뒤, 정부는 참사 이튿날인 30일부터 11월 5일 자정까지 일주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의 예정된 행사를 연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를 비롯해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공공극장 등에서 예정된 행사와 공연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지자체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축제·공연 들이 연달아 취소되며 공연계는 일시 정지했다. 관련 정부부처에서 공연기획사들을 상대로 공연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배포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공연예술계 종사자들 역시 예정된 행사나 공연을 자발적으로 취소 또는 순연하며 이 같은 애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나던 날 저녁, 가수 김광석은 콘서트 무대에 있었다. '이등병의 편지'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르고 난 그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상식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더군요"라며 조심스럽게 사고 소식을 전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 사고가 일어난 줄 몰랐던 객석의 관객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김광석은 관객들을 안정시키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원래 예정되었던 노래가 아닌 당시의 시대상을 비튼 노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불렀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비극을 기억하고 애도했다.

예술은 늘 애도의 곁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두 겹의 편견은 매우 강고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감내하며 돈을 버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예술가들은 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삼았으니 돈을 벌지 못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이 그 하나요, 예술은 일부 계층에서만 즐기는 고급 오락이며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산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기에 대중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시각이 다른 하나다. 이처럼 표면적인 활동만 바라보는 시각은 비극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예술계의 행사와 공연을 멈추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예술가들의 작업과 예술을 즐기는 행위 너머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필요하다.

애도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예술은 예술가와 비예술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세월호 엄마'들로 구성된 4.16가족극단 '노란 리본'은 2016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전하고 있다. 이들이 무대에 오르는 이유는 지난 아픔을 마주하며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더 안전한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다. 공연을 본 관객들 역시 참사를 기억하고 배우들과 교감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진상규명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다고 한다.

예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며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그 누구도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 재난 앞에서 슬픔을 나누기 위해 예술활동을 멈추기를 권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참사가 터질 때마다 예술계의 시계를 정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슬픔을 나누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동시에 예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삶의 모양

Interview 1 관찰하고 상상하는 삶
섬기는 마음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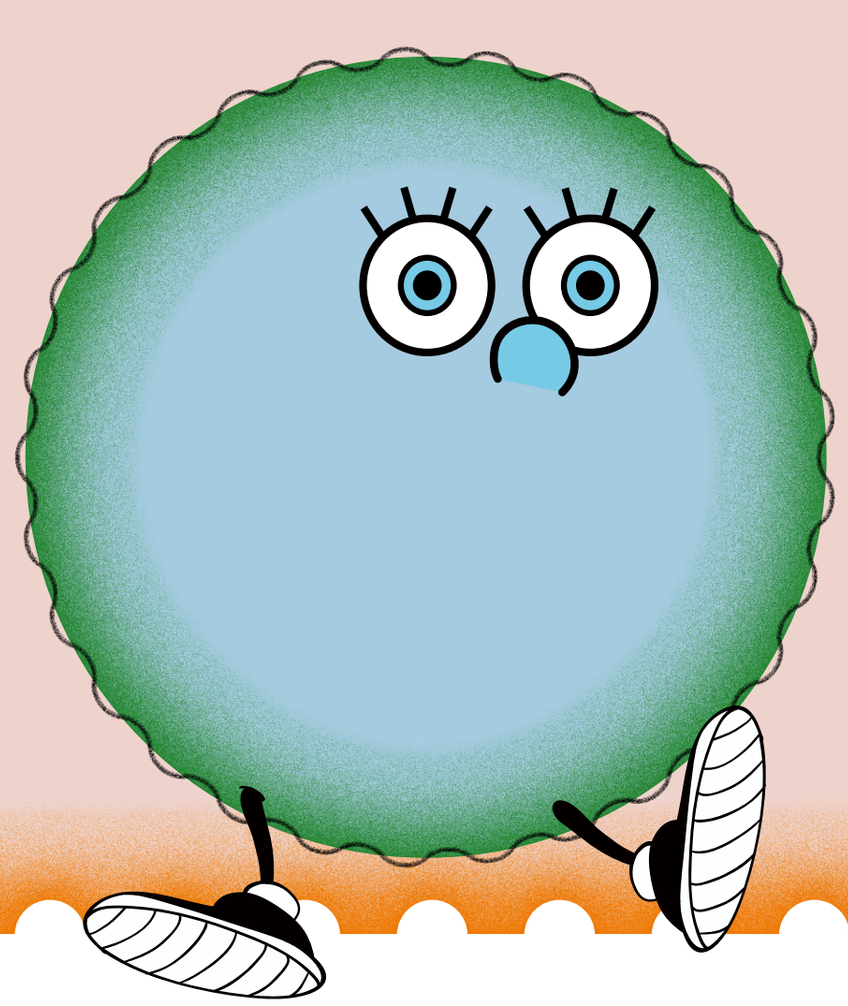
인간의 믿음과 기도하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공현진(공씨) 작가와의 만남

Interview 2 가치를 지키는 삶
재료의 탐색, 예술의 확장

재료와 작품, 그 이면에 자리한 예술가의
책임감과 소신. 플라스틱에 이어 도자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조다솔 작가와 나눈 이야기

Festival 함께하는 삶
예술과 함께한 상상놀이

강서·양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모임 'MoMo(모모)'가 개최한
지역축제 <상상놀이>의 현장 스케치



글 EDITOR 안미영
사진 PHOTOGRAPHER 황규백

섬기는 마음에 관하여

공현진(공씨)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작가.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고 대학원 예술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졸업 예정이다. 나무와 점토 등의 재료를 주로 사용하며 2013년부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개최했다. 인간의 믿음과 기도하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로 예술세계를 펼쳐내고 있다. 지역과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개인적인 연구도 계속하는 중이다.

현대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예술가는 왜 그런 작업을 하는가' 하는 물음을 품는다면 공현진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를 탐구하는 예술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_'예술가의 자리찾기'로 탄생한 컬러링북의 초안이 된 작품

시각예술작가 공현진(공씨)은 대상을 바라보는 섬세한 시선으로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하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조각 작품이 움직이며 소통하거나, 특별한 서사가 있는 공간에서 작품의 고유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면을 상상한다. 그의 작품에는 신(神)이 자주 등장하지만 그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는 나무, 점토, 영상 등 다양하다.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며 양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공현진 작가를 인터뷰했다. 사소한 것에 영감을 얻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를 상상하는 그의 예술세계에 다가가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작품사진 제공_ 공현진(공씨)
장소협조_ 목공방 휘서

최근 2-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예술가들의 활동범위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가님은 그동안 하지 않던 미디어 작업을 시작하셨죠.

네, 가장 최근작인 <비대면 꼭두조각극>은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적인 영상 작업이었어요. 나무라는 매체로 조각을 탐구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조각품으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소통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전시장에서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이 어려워졌을 때, 가상세계에서 조각 작품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상상했어요. 이번에는 미디어 작업이었지만 앞으로는 무대에서 제대로 조각극을 만들어보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_<비대면 꼭두조각극> 포스터

2020년 발표하신 <코로나 백신(百神) 연구> 작업도 흥미로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진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소재로 삼아 기발한 작품을 선보인 것이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모두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어요. 3분이 조금 넘는 영상인데 '백 가지 신'이라는 의미를 담아 신들을 만들었고 음악도 직접 작업했죠. 일상적인 부분이나 당시의 뉴스에서 영감을 받은 것도 있고, 불교나 무속신앙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_<비대면 꼭두조각극> 작업 과정

_<코로나 백신 연구> 스케치

조각 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재료를 경험해보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지금은 나무를 주재료로 삼고 계시죠. 어떤 점에 끌리셨나요?

제 생각과 시간과 손맛이 작품에 깃들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재료가 나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혼자 작업실에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통나무가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그게 환상처럼 보였죠.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틀어질 때가 있는데 그 또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자연 앞에서는 의미 없게 느껴지고 나무가 영감을 주는 재료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나무를 재료로 다루지만 나무가 싫다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가님의 작업에는 신(神)과 제의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어렸을 때 대가족으로 살면서 증조할머니와 할머니가 저를 많이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외갓집은 절이었죠. 그런 환경 덕분에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굿을 본 경험도 신기하게 남아있고, 향을 꽂고 촛불을 켜거나 기도하는 것, 부적을 쓰는 것 같은 제의적인 형식이 하나의 놀이처럼 다가왔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 작업에 녹아들었죠. 이후 대학원에서 '민간신앙 연구'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의 민간신앙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무속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고 우리 국민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에 깃든 신의 존재나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나셨네요.

맞아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이 집 곳곳에 신이 있다고 믿었던 가신 신앙이 있는데, 저는 신을 섬기는 마음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나무를 단순한 나무토막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나무로 바라보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작업을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작업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작가님의 섬세한 시선 또한 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일상풍경을 사랑하는데 그중에서도 전통시장을 참 좋아해요. 시장에서 물건이 진열된 풍경도 조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상인들의 그런 '솜씨'를 보면서 그 안에서도 영감을 얻죠. 제가 시장의 풍경을 존경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업의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서 영감을 얻으시는 것처럼 장소를 바라보는 작가님만의 관점이 있을 거 같아요. 일반적인 전시장을 벗어난 공간에서 전시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시죠. 버려진 공간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셨는데, 전시 공간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공간의 기운을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작품을 올려두는 좌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그냥 놓였을 때 공간 안에서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장소를 찾습니다. 처음부터 전시를 위해 마련된 화이트 큐브에는 흥미가 없고, 서사가 있는 곳에 끌리는 편이에요. 버려진 공간이나 재생된 공간처럼 사연이 깃든 장소에 제 작업이 슬며시 스며드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2016년 미아리 집창촌 골목에 있는 폐건물 'THE TEXAS PROJECT'에서 <선문답> 전시를 개최했죠. 또 미아리고개 고가도로 아래의 유휴공간을 재탄생시킨 '미인도' 역시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장소예요. 그곳에서는 <비틀린 낙원>이란 전시를 했어요.

_<선문답> 전시 설치 전경

(위부터)
_<비틀린 낙원>의 전시장 외관
_<비틀린 낙원> 전시 설치 전경
_공현진 작가가 진행한 관객참여형 프로젝트

<비틀린 낙원>에서는 관객참여형 프로젝트도 진행하셨죠. 그 공간에서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건 어떤 경험이었나요?

제가 전시장 한편에 앉아서 '걱정을 써드립니다'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어요. 관객이 걱정을 털어놓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적을 써드리는 거였죠. 본래 부적에는 특정한 형식이 있고 글과 그림, 그리고 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좋은 오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들어오는 관객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중 한 아주머니가 그동안 제가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에게도 부적을 써드렸는데, 그날 전시장 문을 닫기 전에 다시 찾아오셔서 음료박스를 건네시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주시더군요. 그때 제가 예술가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계속 작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관객들과 소통하며 색다른 방식으로 치유의 기회를 선물한 작업이네요. 작가님에게도 도움이 된 특별한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죠. 사실 현대사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히 실험적이고 매체가 다양한 현대미술은 난해하다고 비판받기 쉽죠. '대체 왜 그런 작업을 하는가' 하는 시선을 받진 않나요?

예전에는 왜 그런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지 묻거나 왜 민간신앙 같은 작업을 하냐는 식의 질문을 받으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가가 어떤 확신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니 담담해졌죠. 이제는 그런 시선으로 인해 제 작업이 더 특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술가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다른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해방감'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적으로 표현한다면 '신명풀이'가 되겠죠. 예술가가 자신의 본능과 욕구, 무의식을 표현하면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그 결과물인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에게 신명풀이를 해주는 역할로서, 예술은 계속 활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는 그 신명풀이를 이끌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겠군요. 여기와 너머, 그 사이에서요.

꼭두가 떠오르네요.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식에서 상여를 장식하는 조각인데, 삶도 죽음도 아닌 중간에 위치한 존재예요. 망자가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저 너머로 가도록 도와주죠.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꼭두조각도 사라졌어요. 저는 예술가가 그처럼 경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같아요. 무속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무당처럼, 예술가도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개인의 상상에 따라 다양할 텐데, 좀 더 먼저 그곳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포착하는 게 예술가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양천이라는 지역 안에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활동하시는 것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20년 양천구로 이사 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작업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나무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실을 구하던 중에 목공방 휘서의 대표님과 인연이 닿아 이곳을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시 청년예술인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신의 형상을 조각한 <공공의 신(神)> 연작을 작업했죠. 양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신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는 아이디어로 주민들에게 설문을 했고, 답변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다양한 신을 만들었어요. '공든 탑 신'은 한결같이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애어르 신'은 학구열이 강한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죠. 창작자로서 제 감각만 믿고 홀로 작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협업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지역에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며 하나의 전환점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양천문화재단의 'N개의서울-공공의 상상'을 통해 '예술가의 자리찾기'에 참여했어요. 예술가의 생태를 만들고 생계를 위한 현실적 삶도 꾸려가야 한다는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역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생각을 나눴습니다.

_'공든 탑 신(神)', 15×10×30cm, 마티카, 2020

_'애어르 신(神)', 11×10×30cm, 마티카, 2020

_<공공의 신> 프로젝트 작업 과정

2022년을 돌아본다면 어떤 한 해였나요? 새해에는 어떤 작업을 선보이실지 기대가 됩니다.

2022년은 박사 논문에 집중했던 한 해였어요. 제 작업에 대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작품을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작업에 드러나는 무속적인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작품을 만들며 어떻게 지역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되짚어보는 과정이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새로운 주제도 떠올랐는데, 한국의 무속 이미지와 무속적 컨텐츠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적인 것들과 사라져가는 것들을 동시대 작가로 살아가는 제 시선으로 탐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개인전을 개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가고 싶은 태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예술가에겐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부터 제 마음 속에 '굳이 뭐…' 하는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어요. 굳이 그걸 느껴보고, 굳이 직접 가서 보고, 굳이 그걸 탐구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이요. 그런데 예술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거나 감추려고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해요. 그런 면에서 스스로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글 EDITOR 최윤정
사진 PHOTOGRAPHER 황규백

재료의 탐색, 예술의 확장

조다솔
대학에서 공간 디자인을 전공했다. 가구 디자인에 이어 '달마시안 선반', '풍기램프' 등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다시 쓰임의 가치를 탐구하는 책 <재료와 재활용>을 출간했고 현재 도자기와 캔들 공예를 배우며 예술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조다솔 작가는 재료와 형태는 달라져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곁에 두고 쓸 수 있는 작품, 책임감의 가치를 지키는 예술을 지향한다.

_요즘 몰두하고 있는 도자기 작업

작가 조다솔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재미있다고 여기는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오래도록 가치 있게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일이 바로 예술가의 소명이라고 믿는다. 대학교에서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작업했고 지금은 도자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예술의 재료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점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오래도록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작가는 작품의 이면에 감춰진 예술가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품사진 제공_ 조다솔
장소협조_ 공방 리키리키

조다솔 작가는 2019년 밀라노디자인위크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해 타일을 만든 독일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재활용 플라스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서해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한 그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표현할 수 있는 질감과 색감의 다양성, 재료의 물성이 주는 즐거움에 매료되어 시작했어요. 작업을 지속하면서 사용자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플라스틱’이라면 가볍고 단순화된 색상을 떠올리지만 그의 작품은 마치 대리석처럼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며, 다양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다. “재료를 수거하면 다양한 컬러의 플라스틱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색에 따라 미묘하게 작품의 컬러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리석 패턴을 더하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점이 무척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제작은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수거한 플라스틱 병뚜껑을 선별해 세척한 후, 색과 형태별로 플라스틱을 분류해 잘게 분쇄한 뒤 가열해 녹이고, 제작된 금형에 주입해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친다. 재료가 녹고 굳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양을 구현할 수 있는 유연성이야말로 플라스틱이 지닌 장점이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은 달마시안 선반과 풍기램프. “작업을 할 때마다 수거한 플라스틱 병뚜껑의 색과 양이 달라 다양한 패턴이 나오더군요. 애니메이션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 연상시키는 패턴이라 이름을 ‘달마시안 선반’으로 지었습니다. 풍기램프는 버섯을 닮은 무드등으로 유일무이한 패턴을 지닌 개성 넘치는 작품이죠.”

_풍기램프

_달마시안 선반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작업실을 운영하며 작업에 매진하던 그는 2020년 플라스틱 디자인 작업을 중단했다. “어느 순간 플라스틱 디자인 작업을 지속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어요. 작업 공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먼지 등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 완벽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홀로 해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약 2년간의 플라스틱 디자인 작업 활동은 헛되지 않았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만 플라스틱 디자인 제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올바른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플라스틱을 ‘일회용품’ 혹은 ‘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면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버릴 때도 책임감을 가지고 버려야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제게 플라스틱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원천이었기에 아카이빙을 함으로써 지난 작업 활동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21년, 재활용 플라스틱 작업을 하며 아카이빙한 재활용 소재에 대한 생각과 예술가와 제작자 등 여러 사람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책 <재료와 재활용>을 출간했다. 재활용을 하는 과정은 새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더 가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처음의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넘어선다면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것을 알리고자 했다.

_책 <재료와 재활용>

_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의 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책을 통해 제 생각을 전하고 싶었어요. 플라스틱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구입한 물건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또 다양한 재활용 소재 및 업사이클링 방법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1년 전 양천구로 터전을 옮긴 그는 몇 달 전부터 도자와 캔들 공예를 배우며 작업에 매진 중이다. 다양한 소재 중에서도 왜 도자기와 캔들을 선택한 것일까.

"예전부터 손맛이 느껴지고 저만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도자도 플라스틱처럼 만들 때마다 형태와 느낌이 달라져요. 완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만들면 쉽게 금이 가지만, 정성을 들이면 단단한 질감의 도자기가 탄생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배우고 있습니다. 또 흙의 물성을 손으로 감각하며 책상에 앉아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점도 도자 작업의 매력이죠. 캔들은 향을 어떻게 배합하고 어떤 색깔을 주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로워요. 지금은 도자와 향을 함께 선보일 수 있는 저만의 작업을 구상 중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그가 도자 작업을 사랑하는 이유다. "작업 자체도 재미있지만 조용히 눈 앞의 도자기를 바라보며 하루의 일을 곱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좋아요. '나 오늘 뭐했지?' '친구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지?'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 다양한 생각들을 마주하며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가고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퇴색되어 가는 요즘, 그는 모두가 삶을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부분 밤하늘에 별 볼 시간도 없이 매일 반복되는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잖아요. 작업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쯤 가졌으면 좋겠어요. 삶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예술이 지닌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_독창적인 형태를 띄는 도자기 작품

조다솔 작가는 지난 9월, 2022 양천 문화예술생태계 기반조성 사업 <싹>의 청년예술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공방에서 선생님께 도자기를 배우며 작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재활용 플라스틱 작업을 할 때는 혼자서 여러 과정을 이어가느라 분주했는데, 도자기를 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몸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반경을 넓혀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는 도자기 공방에서 컵과 그릇, 캔들 홀더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규정짓기보다는 사용자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용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이블웨어 혹은 사무용품, 무엇으로 불리든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도자기는 녹지 않아서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사용하는 재료는 달라졌지만 사람들이 곁에 두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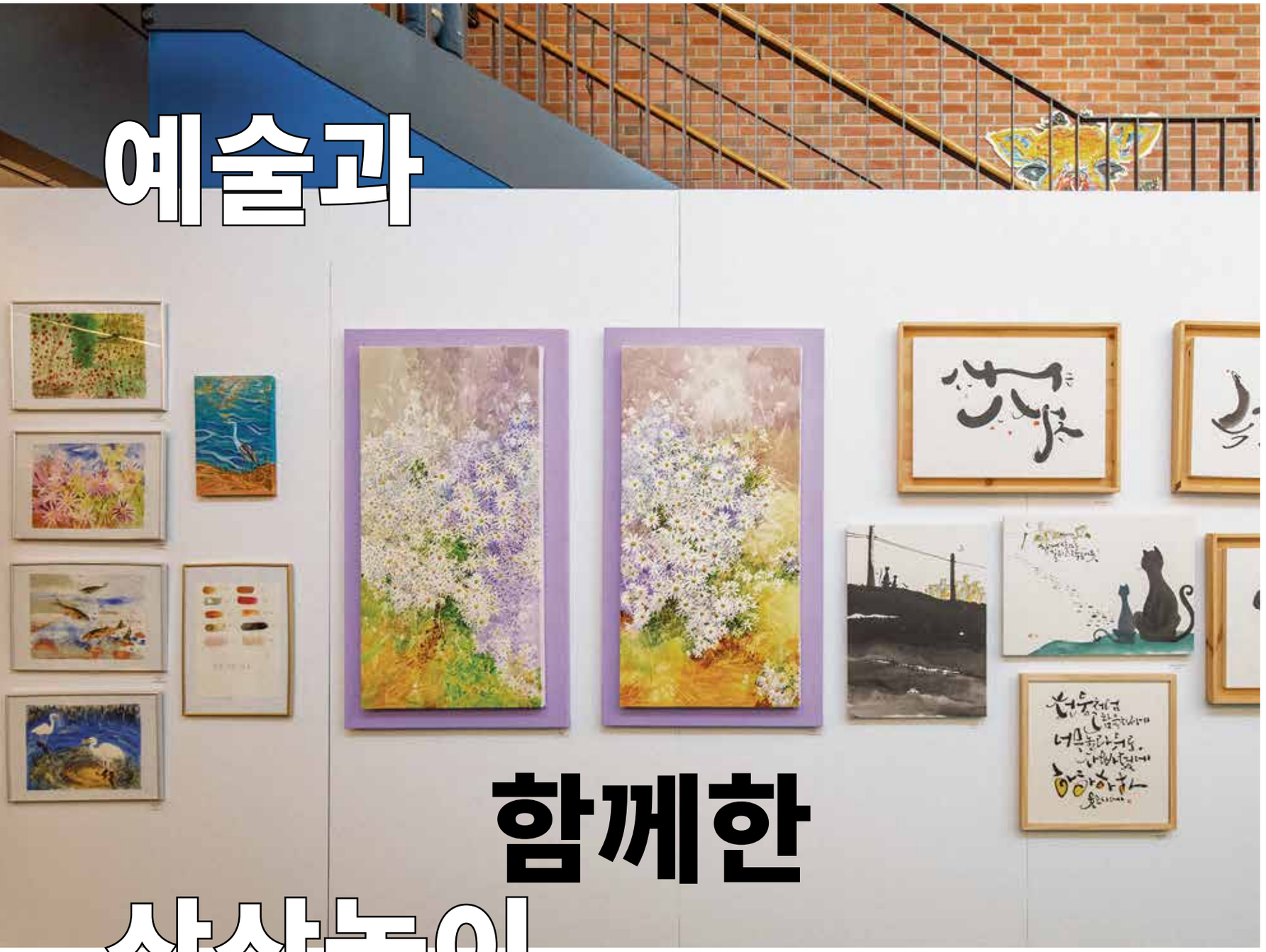
같은 물건이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듯이, 조다솔 작가가 빚는 도자기는 그의 예술 세계를 투영하고 있다. 그에게 예술이란 생각한 것을 구현해내는 것이다. "컵을 만든다고 가정해 볼까요? 넓적하고 둥그런 컵, 길고 뾰족한 컵 등 다양한 이미지가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저는 제가 멋지다고 생각한 이미지의 컵을 직접 만들고 싶어요. 이처럼 떠올린 이미지를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예술이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좋아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제가 하는 일에 매일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특별한 계획은 없다. 늘 그렇듯이 어제처럼 오늘도 도자기를 빚는 예술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업을 이어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달마시안 선반과 풍기램프처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지만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그의 작품에 깃든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동심원처럼 잔잔하지만 멀리 퍼져 나갈 날이 오지 않을까.

글 EDITOR 최윤정
사진 PHOTOGRAPHER 황규백

예술과 함께한 상상놀이



_전시 <상상 미술관>에서는 자연 풍경을 담은 회화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 10월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이 어우러진 지역축제 <상상놀이>가 열렸다. 정형화된 예술이 아닌, 각자의 상상 속에서 꽃피운 유일무이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예술이 지닌 가치는 간단히 표현하기 어렵다. 예술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넘어 미처 알지 못했거나 떨쳐내지 못했던 과거의 여러 감정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 더 나아가 각자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여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 지닌 위대한 힘이 아닐까.

강서·양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모임 'MoMo(모모)'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2022 열린지역축제 <상상놀이>를 개최했다. <상상놀이>는 강서 · 양천 · 영등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지역 통합 축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는 온라인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등이 어우러져 지역예술과 예술교육을 통합한 축제로 변신했다.

주최자인 모모는 지역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업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구민들 역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감의 축제를 만들고자 고심했다. 이런 의도로 강서·양천은 물론 영등포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무용,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관객들과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두에게 열린 예술교육

양천구의 재봉틀 공방 '니들앤쏘잉'은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공예체험을 진행했다. 못 입고 버리는 헌 옷, 쓸모없는 자투리 원단 등 폐패브릭을 활용해 나만의 걱정인형을 만드는 체험으로, 걱정은 날려버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예 시간을 만끽했다.

무용가 김량희는 '소소한 움직임으로의 만남'을 주제로 오픈 클래스를 열었다. '양천문화재단: N개의 서울'에서 '춤을 짓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다양한 재료를 섞어 한끼 밥을 완성하듯, 나와 이웃의 몸짓이 섞여 하나의 춤으로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춤을 규정짓기보다는 사람들이 움직임 자체를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이끌었다. 동작을 배우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춤으로 그에 화답하며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예술 모임 에이챗(A-chat)은 볼록 판화 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지우개 도장과 패브릭 포스터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_(1, 2) 니들앤쏘잉의 업사이클링 공예 / (3, 4) 에이쳇의 지우개 도장 만들기 / (5) 예술안심도시협동조합의 에코백&파우치 만들기 체험

_7명의 지역예술가가 참여한 특별 전시 <상상 미술관>

강서구의 예술가 정지현은 칼라점토를 이용한 냉장고 자석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나뭇잎, 계란, 꽃, 고양이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직접 만들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영등포구의 예술안심도시협동조합은 '나만의 에코백&파우치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았다.

로비에서는 김윤정, 김창숙, 장수연, 정기숙, 정지현, 유영미, 현경숙 7명의 지역예술가가 참여한 특별 전시 <상상 미술관>이 열렸다. 공예, 캘리그라피, 회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자연 풍경, 웃음을 짓게 하는 인생 문구 등을 소재로 관람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_<2022 가을한마당축제: 다시 만난 우리!>에 참여한 부스

양천의 문화예술이 한자리에

이번 축제 기간 중 10월 22일에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외부공간에서 <2022 가을한마당축제: 다시 만난 우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약 30여개의 단체 또는 기관이 참여해 부스를 마련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알렸다. 기린청소년센터지역아동센터는 기린청소년센터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간식을 판매하고,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는 책자를 나눠주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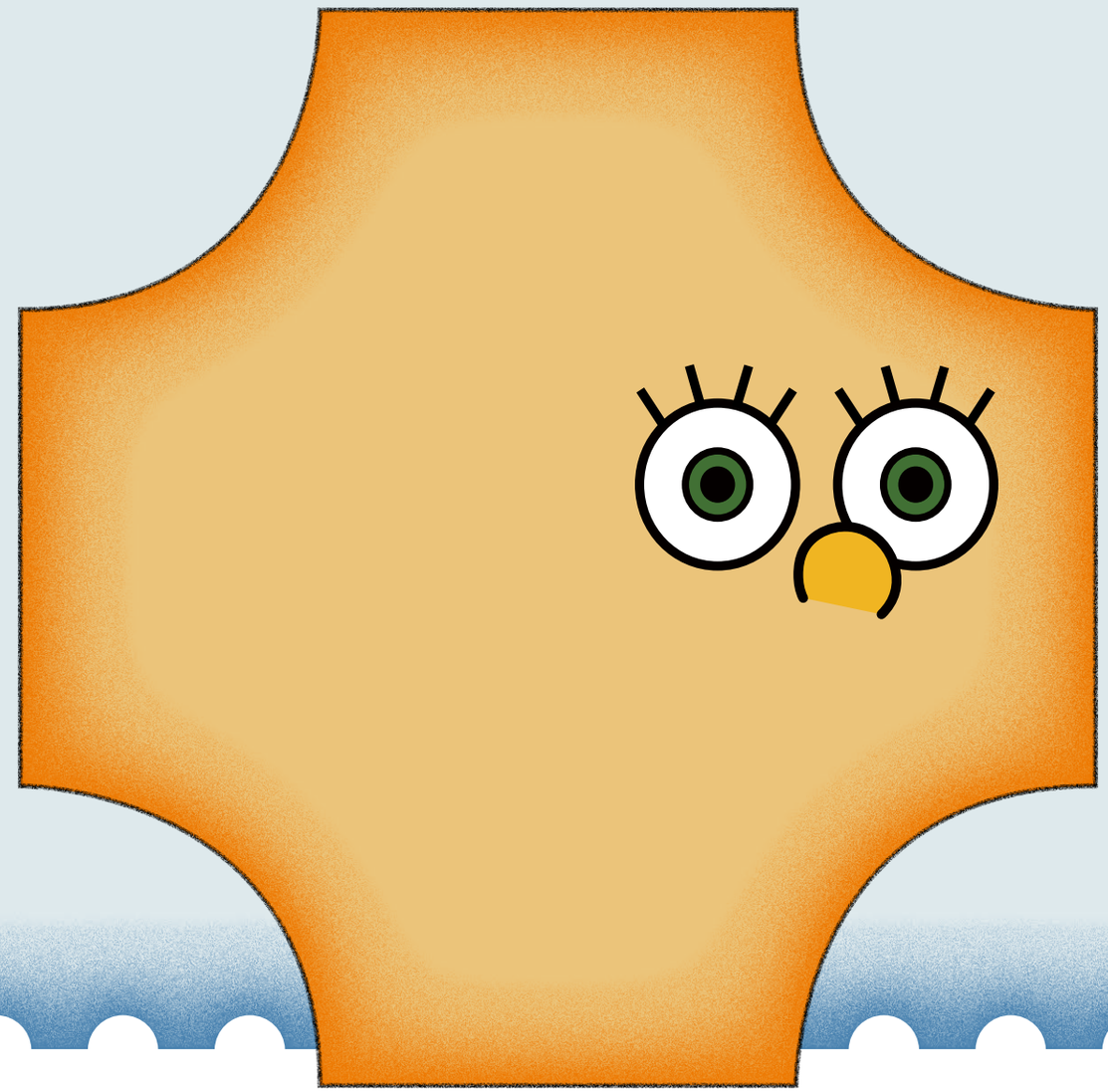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기후위기 대응: 제로로'처럼 명확한 주제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작은 힘으로도 쉽게 병뚜껑을 열 수 있는 오프너, 손이 불편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가위인 캐스타 등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을 선보였고, 해당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양천구 사회적경제 기후위기대응 통합 플랫폼 제로로에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양천아이쿱생협, 환경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선보인 재미누리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10월 22일과 23일에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야외수조에서 난타, 성악, 왁킹 댄스 등 다채로운 분야의 공연이 열렸다. 양천 지역의 50, 60대 남성들의 난타 모임인 '별난두드림'의 흥겨운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푸른나래어린이합창단이 차임벨 연주로 청아한 울림을 전했다. 밴드 '여름눈'은 '남쪽 바람이 불면', '키스는 성북동 언덕에서' 등의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예술 교육과 전시, 공연이 어우러진 지역 통합 축제 <상상놀이>는 구민과 예술가가 함께 모여 예술을 향유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22년의 축제는 끝났지만 아쉬움을 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예술 축제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_<상상놀이>에서는 난타, 차임벨 연주, 성악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공간의 모양



View 힐링하는 공간
고요의 계절을 즐기는 법

겨울의 향기를 음미하며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하기 좋은 사색의 공간으로 안내한다

Architecture 조화로운 공간
공공건축의 묘미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지며 주민들에게 훌륭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 양천공원 책 쉼터의
뛰어난 건축적 성취를 조명한다

Space 자연을 느끼는 공간
생동하는 자연을 마주보다

양천구에서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만날 수 있는 곳,
최근 새롭게 개관한 에코스페이스 연의

SNS 공감하는 공간
우리가 사랑한 계절

양천구 주민들이 SNS에 남긴 일상의 기록들

글 EDITOR 최윤정
사진 PHOTOGRAPHER 황규백

고요의 계절을 즐기는 법

옷깃을 여미는 쌀쌀한 계절.
집 앞 공원과 산, 절에서 내면을
바라보는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자.
겨울의 향기를 음미하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행위를 통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뜨겁고 강렬하게 에너지를 발산하던 여름, 붉디붉게 타오르는 단풍으로 유혹하는 가을을 지나 하얗게 덮인 눈을 바라보며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싶은 겨울이 왔다. 가슴 깊숙이 따스한 온기를 품고 새로운 기운을 맞아들일 시간이다.

본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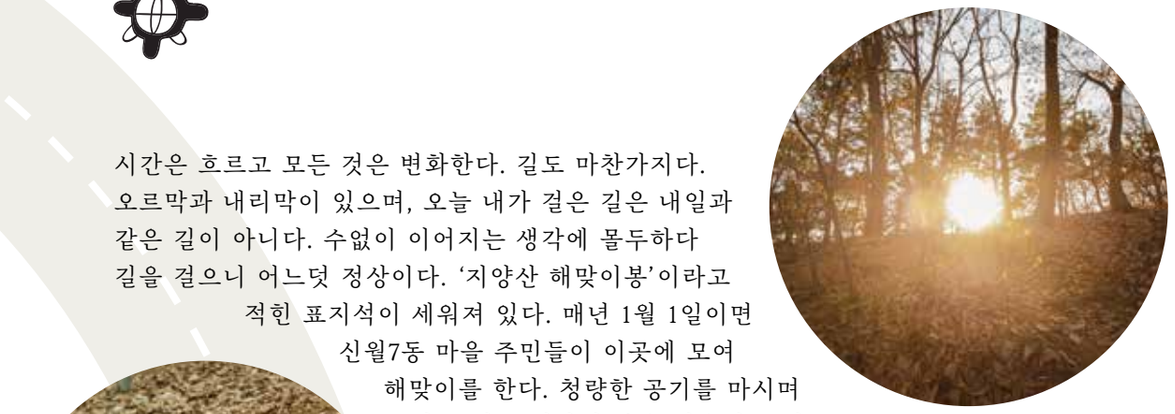
나는 절 내부에 감도는 적막함과 고요를 사랑한다. 한 해를 조용히 마무리하기 좋은 장소를 찾다 지난번에 우연히 지나쳤던 본각사를 떠올렸다. 아무도 없는 절에 홀로 들어가 기도를 하는 일이야말로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평온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오래 함께해 주기를, 그들을 바라보는 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소원을 빌고 나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설령 내 뜻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타인의 안위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새해에도 순조롭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양산 숲이 좋은 길

번잡함에서 좀 더 벗어나 깊숙이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오래된 나를 떠나보내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나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양천구 신월동과 부천시 작동의 경계에 있는 해발 125m의 지양산으로 향했다.

어제까지 꽤 추웠던 날씨가 다행히 오늘은 조금 풀린 기색이다. 코 속으로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를 흠뻑 들이마시며 지양산 숲이 좋은 길 입구에 섰다. 나도 모르게 완만한 길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일까. 입구부터 펼쳐지는 오르막길에 후회가 앞선다. 하지만 이 길을 넘는다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다리에 힘을 주고 한 걸음씩 내딛는다. 산을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고개를 홱 돌렸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바람인가 싶어 다시 길을 오른다. 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날 바라보고 있다. 길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파헤치고 있었나 보다. 녀석이 하는 낙엽 놀이를 관찰하다 나도 발바닥에 집중하고 낙엽을 밟았다. 발걸음마다 바싹 마른 갈색의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앞으로 향했다. 쉼 없이 이어지는 나무 계단을 오르니 숨이 차오른다. 이대로 계속 올라가야 하는 걸까 생각하는 순간 다시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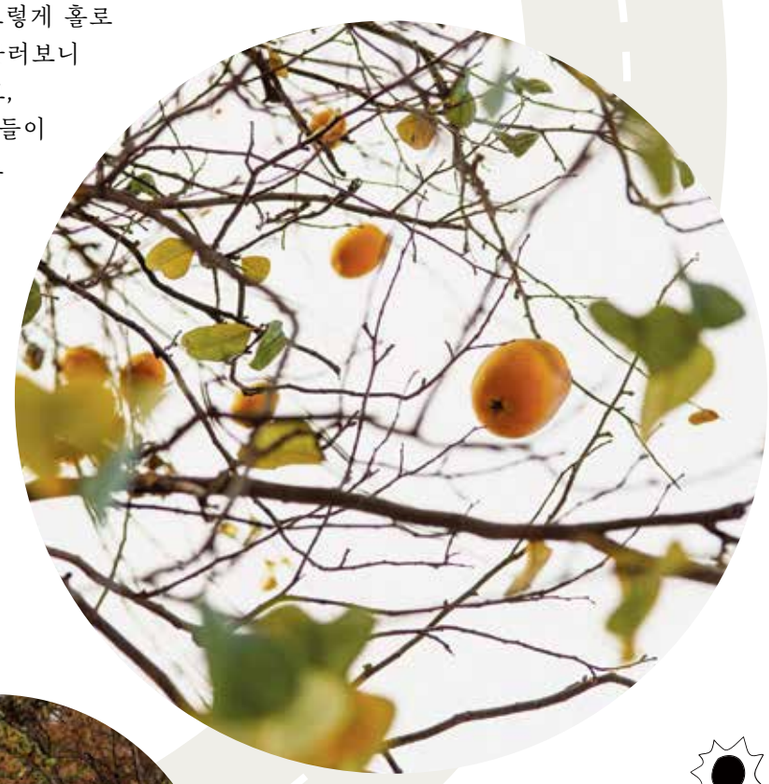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길도 마찬가지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으며, 오늘 내가 걸은 길은 내일과 같은 길이 아니다. 수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몰두하다 길을 걸으니 어느덧 정상이다. '지양산 해맞이봉'이라고 적힌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매년 1월 1일이면 신월7동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 해맞이를 한다.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나무 위로 태양의 붉은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분명 무엇이든 잘될 것이라고 옆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질 것 같다. 해맞이봉 표지석 옆 헬스장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체력단련을 하고 있었다. 고요 속의 활기가 느껴지는 곳을 꼽는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이제는 내리막길이다. 너무 힘든 등산에 지친 것일까. 하얀 개가 주인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며 내 옆을 지나갔다. 다시 한 번 다리에 힘을 주고 잘 내려가 보기로 했다. 예기치 못한 오솔길에서 폭신폭신한 낙엽의 존재를 발바닥으로 느끼면서.



신트리공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만큼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이 없다.
토요일 오전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나
신트리공원으로 향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원을 걷거나 농구를
하며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봄에 꽃이 만발했던 공원은 이미 겨울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소란스러워진 마음을 다독이며 포장된 초록길을
천천히 걸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쓸데없이 애쓰지 말자고, 지금은 인내를 배우는
중이라고 되뇌어본다. 그렇게 홀로
생각에 빠지다 주위를 둘러보니
쉼터에 앉아 장기를 두고,
윷놀이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보였다. 현재를 걱정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순간에
몰입하며 살아가라고
말을 건네는 듯하다.
전전긍긍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나무들도 말없이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있다. 그들은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를 지나면
파릇한 새싹을 피울 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글 EDITOR 전종현(디자인·건축 저널리스트)
사진 제공 PHOTOGRAPH 서로아키텍츠

공공건축의 묘미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쉬어가는 공간이자 뛰어난 건축적 성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건축물, 양천공원 책 쉼터를 소개한다.

_공원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양천공원 책 쉼터 외관

나는 1995년부터 목동에 27년째 살고 있는 양천구민이다. 양천구는 건축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서울 속 작은 계획도시'라는 점이다. 지난 1988년 완공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개발은 목동과 신정동을 잇는 기다란 상업 축을 총 14개의 주거 단지가 감싸면서, 일방통행 도로와 상업 중심 지구에 하이페리온을 위시한 고층 주상복합의 장대한 풍경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신시가지에서 공원은 일찌감치 구민 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목동의 파리공원과 신정동의 양천공원은 이 작은 계획도시의 허파와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양천공원에 한 건물이 소리 소문 없이 만들어졌다. 최근 그곳에 방문한 나는 솔직히 놀랐다. 건물의 콘셉트부터 이용 현황까지 실로 경이로울 정도로 건축적 성취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양천공원 책 쉼터'는 이미 건축계에서 유명하다. 지난 2021년 '서울시 건축상'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같은 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 건축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건축 시장인 서울에서 매년 가장 뛰어난 건축적 성취를 보인 소수의 건축물이 받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건축물에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즉, 이 두 상을 모두 받았다는 것은 땅값 비싼 서울에서 예산 적기로 소문난 공공건축물을 무척이나 훌륭하게 잘 지었다는 뜻이다. 더불어 상업 공간, 주거 공간이 아닌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동시대에서 손꼽히는 좋은 건축물을 경험하는 기회의 장소이기도 하다.

양천공원 책 쉼터는 두 가지 요인이 만나 탄생했다. 첫 번째로는 노후한 목동 신시가지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욕구였다. 조성한 지 30년이 넘은 공원들은 각기 리모델링이 필요했는데, 공원에 건물을 짓는 걸 금기시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리모델링 과정에서 언제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간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분출됐다. 그 아이디어는 곧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시작한 공원 내 '책 쉼터' 조성 사업과 조우했다. 책 쉼터 조성 사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아날로그의 반격>을 쓴 데이비드 색스가 2018년 미국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의 영향이 컸다. 그는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에 우연히 들렀다가 큰 감명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이자 최신 기술로 가득한 서울의 도심공원에서 사람들이 소박한 건물에 들어앉아 풍경과 커피를 즐기며 책을 읽는 모습 때문이었다. 그는 '혁신에 대한 집착을 끝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테크놀로지 시대의 진정한 혁신이란 '기술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반영한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고 역설했고, 여기에서 추진력을 얻은 서울시의 책 쉼터 조성 프로젝트는 양천공원에서 그 첫발을 떼었다.

_하늘에서 내려다본 건축물의 형태

설계를 맡은 서로아키텍츠의 김정임 소장은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책 쉼터를 만드는 시작점부터 과감한 시도를 했다. 운동 공간 인근에 배정한 화장실 근처 부지를 포기하고, 가장 적절한 부지를 다시 찾기로 결심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 소장의 소신이 작용했다. 도서관과 북카페의 기능을 함께 하는 책 쉼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공원의 자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조성한 지 30년이 넘은 공원이 갖는 최고의 장점은 세월의 파고를 넘긴 수령 많은 나무가 만드는 천상의 녹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소장이 찾아낸 대체 부지는 '쿵쾅쿵쾅 꿈마루 놀이터'와 '베이비존' 사이였다. 과거의 야외공원장을 어린이를 위한 통합 놀이터로 바꾸면서 키지트까지 합친 쿵쾅쿵쾅 꿈마루 놀이터는 아이와 엄마가 모일 수밖에 없는 장소다. 책 쉼터가 타깃으로 삼는 이용자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놀이터와 책 쉼터가 묶이면 강한 시너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는 고운 잔디로 이루어진 베이비존 또한 마찬가지였다. 더불어 부지 뒤편에는 느티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산책로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 속 책 쉼터라는 콘셉트에도 잘 맞았다.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려 현장을 살피던 김 소장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 최대한 녹지 훼손을 막으려는 마음으로 둘러보다 유독 잘생긴 감나무가 눈에 쏙 들어온 것이다. 이 감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물을 설계한다는 아이디어는 곧 책 쉼터의 특성을 결정짓는 기본 콘셉트가 되었다. 보통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티가 난다. 건축가나 건축주는 건축물이 조형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기 마련이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눈에 확 들어오는 랜드마크적 특성은 건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다. 김 소장은 이런 면을 싹 포기했다. 대신 철저히 주변 환경에 녹아드는 전략을 세웠다. 쿵쾅쿵쾅 꿈나루 놀이터와 베이비존의 동그란 부지에 맞춰 건물 외관을 오목한 곡면으로 처리했고, 감나무 한 그루와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는 부분은 반원형의 쉼터로 보존했다. 그러다 보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꼭 치즈를 몇 번 베어 먹은 듯한 기묘한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시도가 가져온 효과는 놀라웠다. 주변 환경에 자연스레 순응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자 가장 나중에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것처럼 전혀 거슬리지 않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다. 특히 감나무와 느티나무를 위한 반원형 쉼터는 기능뿐 아니라 건물에 독특한 조형적 특성을 부여했다. 더불어 동쪽에 위치한 출입구 앞에 보존한 커다란 나무는 공원의 오래된 역사와 맞물려 자연스러움을 배가했다. 이런 특징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면에 쓰인 재료는 바로 벽돌이었다. 세월이 자연스럽게 배어들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여러 곡률을 지닌 건물을 구현할 때 시공 난도를 낮출 수 있어 여러모로 합리적이었다. 무엇보다 하얀색을 선택해 밝은 기운을 은은히 뿜어내면서도 주변 풍경을 해치지 않아 도리어 사계절 변화무쌍한 나무가 돋보이는 도화지 효과를 냈다. 그야말로 공원에 스며드는 건물이었다.

_오목한 곡면의 건물 외관

_완공 직후 내부에서 바라본 감나무 쉼터의 모습

_내부 공간은 코어 역할을 하는 원형 카운터를 제외하곤 흐르듯 자연스럽다

양천공원 책 쉼터는 부지 선정과 조형적인 콘셉트도 뛰어나지만, 공원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책 쉼터'라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부 공간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고 싶다. 책 쉼터는 단층 건물이지만 내부에서는 출입구 쪽 1층과 뒤쪽 2층으로 높이가 구별된다. 이는 부지가 본래 지닌 1.2m의 단차를 건물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시야를 가리는 기둥이나 벽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흐르듯이 설계한 공간은 장애인을 위한 램프(경사로)와 계단이 1층과 2층을 구별할 뿐이다. 가장 높은 층고가 3.6m에 달하는 446.79㎡ 넓이의 건축물 내부를 활용하는 방법과 개방성 면에서 탁월할 수밖에 없다. 그 비법은 중앙에 위치한 원형 카운터에 있다. 1층에 해당하는 앞면은 놀이 키트 대여소로, 2층에 해당하는 뒷면은 관리자가 상주하는 인포메이션 센터로 운영하는 원형 카운터는 사실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코어 부분이다. 두꺼운 원기둥을 주력으로 삼아 건물 외벽 모두 공학적인 안전을 위한 지지체로 활용했다. 더불어 힘을 지지하는 구조체의 간격이 넓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원 형태로 설계한 감나무 쉼터와 느티나무 쉼터에 강철 플레이트로 구조를 보강하고 이에 맞춰 천장까지 닿는 책장을 설치해 책 쉼터라는 공간의 톤앤매너에 자연스럽게 섞었다. 이런 책장은 공간 구석구석 벽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시각적 통일성과 더불어 책을 즐기는 곳이라는 특징을 배가했다.

책 쉼터 내부는 한 부분도 쉬이 버리지 않고 아주 알뜰하게 활용했다. 경사로만 하더라도 이를 따라 긴 책상을 배치해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건너편에는 눈높이에 맞춰 가로로 긴 통창을 내어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책장 하부에는 벽면을 따라 벤치를 마련했고, 아이들이 눕거나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툇마루 같은 평면 공간을 만들면서 느티나무 숲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건물을 살짝 튀어나오게 했다. 외면을 통창으로 처리해 시야와 채광을 확보한 것은 덤이다. 특히 동그란 베이비존과 맞닿는 부분 중 2층에 해당하는 높은 곳은 아예 4개의 단을 가진 스텝 라운지로 만들고 앞에 폴딩 도어를 설치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유리로 된 폴딩 도어를 끝까지 열고 베이비존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이나 행사를 내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바로 옆에 있는 쿵쾅쿵쾅 꿈나무 놀이터를 감싸듯 9mm 두께의 얇은 철판을 27개의 가느다란 원기둥으로 받쳐 긴 호를 그리는 캐노피를 마련한 것은 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밀접하게 연결하며 또 다른 쉼터를 마련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창출했다. 산책로를 걷던 사람들이 느티나무 쉼터에 있는 좌식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_책장으로 가득한 복도 너머로 스텝 라운지가 이어진다

_폴딩 도어를 열면 외부와 연결이 가능하다

과거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는 서재 같은 장소였지만, 최근에는 거실처럼 편히 쉬면서 책 읽기를 즐기는 캐주얼한 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책 쉼터를 찾아 대화를 나누고 쉬어가면서 책까지 읽게 한다는 전략은 영리하다. 특히 양천공원 책 쉼터는 시민단체에 운영을 맡기면서 건축물이 계속 기능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었다. 1만여 권에 달하는 북 컬렉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은 언제나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동네의 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건축은 설계와 시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프로그램에 맞게 '잘' 쓰이는 게 핵심이다. 관상용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다. 뚜렷한 목적과 타깃을 지닌 건축은 활발히 쓰일수록 그 가치가 빛난다. 추운 겨울 주말에 남녀노소로 복작거리던 양천공원 책 쉼터는 그런 면에서 실로 보배로운 묘미였다.

_유니버설 디자인이자 내부에 또 다른 인상을 주는 경사로

_쿵쾅쿵쾅 꿈나무 놀이터 부지를 감싸며 긴 호를 그리는 캐노피 전경

글 EDITOR 최윤정
사진 PHOTOGRAPHER 황규백

생동하는 자연을 마주보다

추운 겨울에도 살아 숨쉬는 자연의 속삭임이 들리는
에코스페이스 연의.
푸르름이 그리울 때는 이곳으로 가보자.

지난 11월 11일, 양천구 신정동에 자리한 생태학습관 '에코스페이스 연의'의 개관식이 열렸다. 청명한 하늘과 상쾌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날,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려는 구민들이 모여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코스페이스 연의는 국내 유일의 생태환경 저류지 공원인 연의공원에 자리한 연의생태학습관을 증축, 리모델링해 새롭게 선보였다. 시간과 계절에 따라 물의 수위가 변화하는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공원 내에 데크길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산책로이자 습지의 자연을 관찰하는 학습공간을 제공한다.

지상 2층, 연면적 700㎡의 규모로 조성된 에코스페이스 연의의 1층은 전시 공간이며, 2층은 교육 공간, 3층은 옥상정원이다. 각 공간마다 큰 유리창을 설치해 개방감이 느껴지고 외부의 자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특히 각 층의 공간을 테마별로 나눠 다채로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 인상적이다. 에디터가 개관한지 약 열흘 후에 이곳을 찾았는데, 어린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가 식물을 흥미롭게 관찰하며 공간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먼저 1층은 '안내맞이 공간'과 '채집가의 연구실', '연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체험정보를 알려주는 안내맞이 공간에 들어서면 움직임에 따라 반짝이는 빗방울을 관찰할 수 있는 '작은 숲 정원'이 보인다. 한편에 연의 활동 안내 카드를 비치해 이곳을 처음 찾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의공원 둘레길을 살랑살랑 산책해보자!', '연의공원의 풍경을 사진으로 멋지게 남겨보자!' 등 35가지 활동이 적힌 카드에서 원하는 활동을 골라 책으로 만들 수 있다. 카드에는 각 활동 장소가 명시돼 있어 처음 방문한 사람도 어렵지 않게 생태모험가가 되어 공간 곳곳을 누빌 수 있다.

채집가의 연구실은 한마디로 연의공원의 생태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채집, 전시,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쇠물닭,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호랑나비, 미루나무 등 연의공원의 대표적인 동식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다. 캐비닛에 있는 채집 도감함에서 관심 있는 카드를 꺼내 동그란 조명 위에 올려 놓고 관찰하거나, <뒷산의 새 이야기>, <습지생태보고서> 등의 책을 읽으며 생태지식을 쌓아봐도 좋겠다. 중앙에는 연의공원에서 채집한 자연물로 꾸미는 채집가의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공원으로 나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자연물을 채집하고 저장하고 배치하는 과정을 거치며 정원이 완성된다. 채집가의 선반 섹션에는 벌써 채집가들이 가져온 식물 표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채집가의 연구실을 가득 채우는 새소리 덕분에 마치 자연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새소리 플레이어를 통해 연의공원의 대표적인 새소리를 선택해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자체로 힐링이 된다.

_채집가의 연구실

기획 전시를 선보이는 연의 갤러리에서는 2023년 2월까지 에코스페이스 연의의 건립 과정을 소개한 전시 <에코스페이스 연의>를 만날 수 있다. 건축 모형을 포함해 철거 과정, 내부 공사, 증축관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비전과 공간 구상 의도 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에코스페이스 연의의 설립 목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2층에는 '연의 월간 정원', '둥지 교실', '감각의 숲'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 공간인 '둥지 교실'에서는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책상을 배치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운영한다. '감각의 숲'은 푸른 식물들이 자라는 온실로 사계절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물방울, 풀벌레 소리를 듣고 '맨발로 편백나무 밟기' 등 오감을 깨우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빗방울, 안개와 구름 등 채집된 자연의 소리를 버튼으로 조절하는 '숲 감각 믹서'로 자연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다. 자연의 바람과 습도를 느껴보는 소중한 경험이다.

옥상에 올라가면 태양광 발전장치가 있는 '에너지 정원'이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는 에코스페이스 연의를 운영하는 훌륭한 동력이다. 작은 정원에는 곤충호텔과 물방울 분수 등이 아이들에게 훌륭한 놀이터가 되어준다. 또한 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미루나무 전망데크다. 높이 30m에 이르는 기존의 미루나무 다섯 그루를 그대로 살려 건물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했는데,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풍경의 미루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은 앙상하지만 여름이면 미루나무에 풍성한 잎들이 자라나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지 않을까. 연의공원의 연못과 주변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옥상정원에 서서 계절의 흐름을 음미해봐도 좋을 것이다.

_연의공원 습지

_전시 <에코스페이스 연의> 전경

_감각의 숲

한편 에코스페이스 연의에서는 '식물도감 캘리 달력만들기', '연의공원 생태해설', '식물세밀화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식물세밀화 그리기는 연의생태공원에서 자라는 식물과 잎을 관찰해보고 식물 중 하나를 세밀화로 표현해 나만의 식물도감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생태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여름의 풍성하고 푸른 잎사귀는 사라지고 가지만 남은 겨울. 초록의 싱그러움이 그리울 때는 에코스페이스 연의로 향해보자. 사시사철 푸르름이, 자연이 생동하고 있을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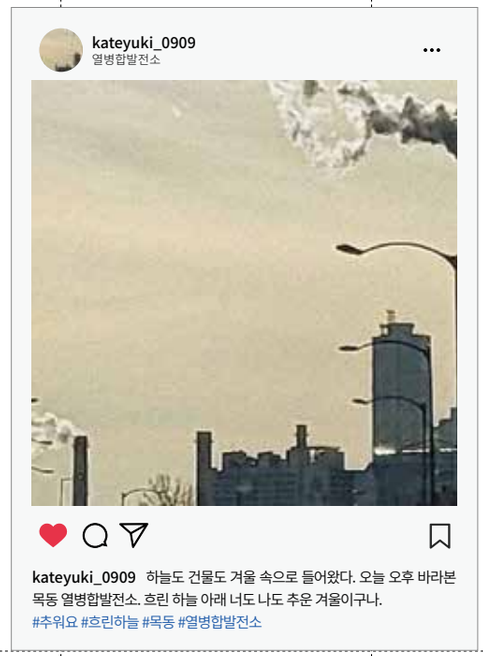
글 EDITOR 최윤정

우리가 사랑한 계절

#해시태그 #양천

늦가을과 겨울 사이 우리의 시간.
느긋하고도 활기차게 보낸
다양한 시간의 기록을 담았다.

#초승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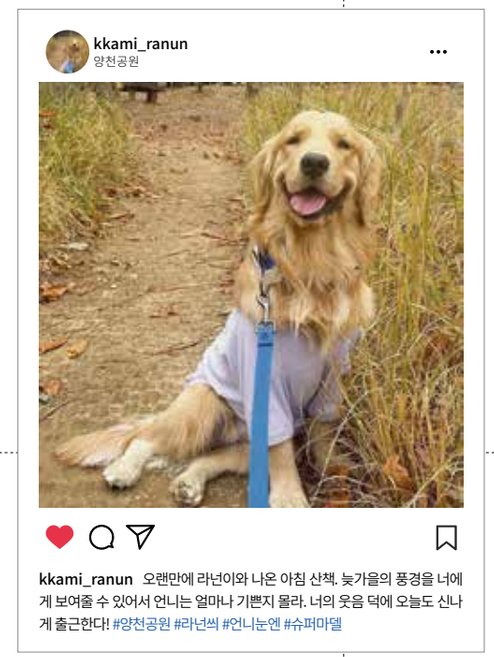
#열병합발전소

#서서울호수공원

<모양모양>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양천구의 사진이 있다면 **#양천모양모양**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다음호에 아이디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양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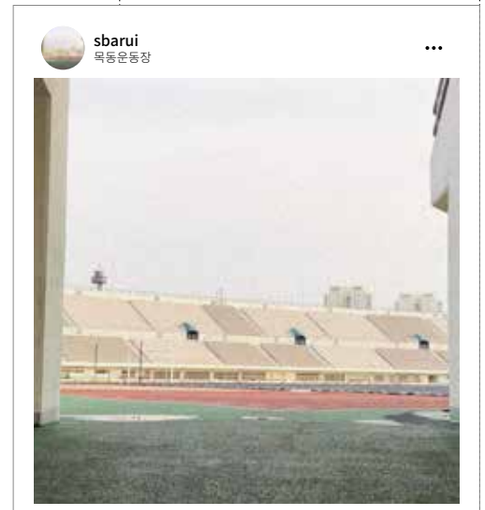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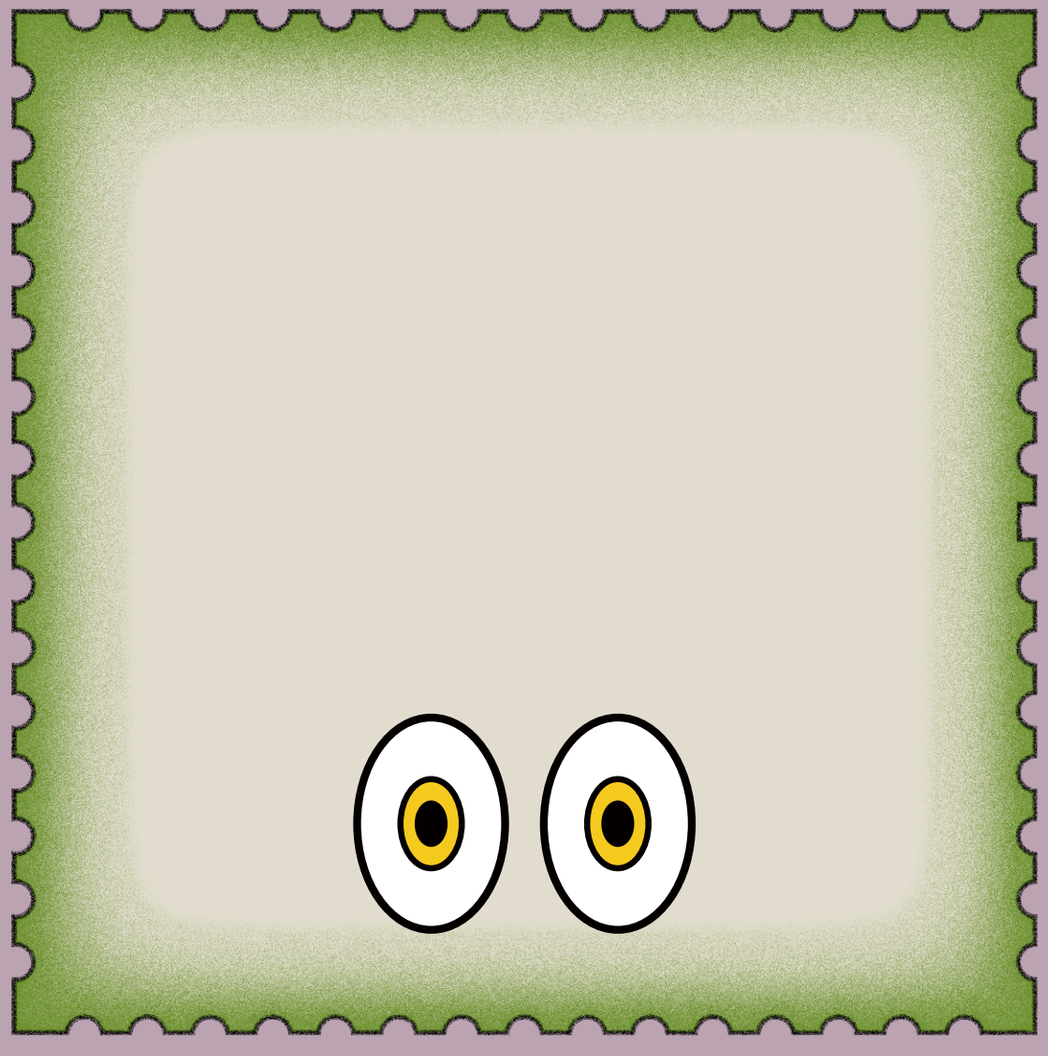
#양천공원

#목동운동장

#산책



양천의 모양



Yangcheon News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이곳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며
동네를 새롭게 느껴가는 작업,
동네실험 프로젝트 <양천 모퉁이 클럽>과
일상매거진 프로젝트 <눈, 코, 입> 결과 공유회

Focus
따스한 공방의 시간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목동의 공방들

Calendar
양천·강서 문화 캘린더

12~3월 양천·강서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글 EDITOR 김유경
사진 PHOTOGRAPHER 황규백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이곳

‘살고 있다’는 말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을 떠올려본다. 살고 있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매일 똑같이 힘든 출퇴근, 대충 챙겨 먹게 되는 끼니, 힘든 하루를 끝내고 바라보는 텔레비전과 SNS는 어쩐지 살아낸다는 것에 가까운 일상인 것 같다. ‘살고 있다’는 생각은 무수한 일상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를 찾아온다. 아파트 단지 앞 어느새 모습을 바꾼 나무들을 보고, 아지트 같은 나만의 작은 공간에 잠시 들렀을 때, 내 취향을 저격한 동네 식당의 음식을 먹고, 퇴근길 모임에 들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한다.

2022년 하반기 양천문화재단의 두 주민공모사업 <양천 모퉁이 클럽>과 <눈, 코, 입>의 기록자로, 이 사업과 양천구에 ‘살고 있음’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는지 발견하는 순간이 있었다.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해나가며 동네를 새롭게 느껴가는 이번 작업은 양천구에게, 또 주민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본다.

우리는 양천구에 살고 있다. 두 주민공모사업은 양천구라는 커다란 동네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갔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게 했다. 또 어떻게 살게 될 것이며 어떤 삶을 원하는지도 생각해보게 했다. 더 많은 주민공모사업으로 양천구에 살고 있는 모두가,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음을 감각하게 되는 순간을 꿈꿔본다. 좋은 추억,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넘어 양천구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단단하고 다정한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모퉁이를 사랑하기 동네실험 프로젝트 <양천 모퉁이 클럽>

드넓게 들어선 아파트 사이로 양천구는 어쩐지 재미를 찾기 어려운 지역 같다. 목동을 중심으로 과열화되어있는 입시 교육과 4인 가족에 꼭 맞는 아파트처럼 정상 가족에 대한 지향성도 강한 곳이다. <양천 모퉁이 클럽>은 이런 양천구에서 재미난 모퉁이를 찾아본다. 우리 사회 속 모퉁이에 유독 눈길이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퉁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이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마음껏 펼쳐볼 수 있게, 각 클럽의 멤버들과 양천문화재단이 응원하고 서로 지지했다.

저마다의 빛나는 모퉁이를 가진 개성 넘치는 팀들이 모였다. 지역에서 발견한 예술로 함께 치유하고 주민들을 연결하는 한편, 익숙하다는 이유로 쉽게 지나쳤던 장면들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인권과 환경까지 저마다의 활동들로 목소리를 내는 팀도 있었다. 5월에 모인 각 팀은 세 번의 자기 발견, 자기표현, 상호응원과 소통 워크숍을 거쳤고,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만나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각 클럽의 활동은 호기심과 새로운 시선, 시도로 반짝반짝 빛났다. 환아를 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모여 원예클래스를 진행한 팀이 있었고, 양천구의 생태를 탐구하는 팀은 커뮤니티를 넘어 더 많은 주민과 함께 탐사 활동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기도 했다. 어머니들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은 지역 주민에게까지 뻗어나갔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한 녹지 공간은 3D 스캔을 통해 색다른 모습으로 탄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팀 내에서 의견충돌이 있기도 했고, 결과물을 어떻게 탄생시켜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어떤 계획은 자주 수정되었고 처음 하는 시도는 때로 난관에 부딪혔으며 주민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실패마저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양천 모퉁이 클럽>이었다. 서로 응원하는 엽서를 나누고 함께 고민했다.

<양천 모퉁이 클럽>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마지막 결과 공유회는 종료되었지만, 많은 팀이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활동을 기획했다. 성공하지 못한 계획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이어가려는 팀도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넓고 깊은 탐구와 지역 활동을 전개해보려 하기도 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실패해도 괜찮다는 서로의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멀리 가게 하고 오래 해낼 수 있게 만드는지 다시 느낀다. 지금 양천구에 필요한 이 믿음이 <양천 모퉁이 클럽>을 통해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동네 이야기 일상매거진 프로젝트 <눈, 코, 입>

양천구라는 커다란 지역을 친숙한 '동네'로 탈바꿈하는 특별한 활동도 진행되었다. 일상매거진 프로젝트 <눈, 코, 입>은 주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각을 매거진 형식으로 기록해, 지역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자 했다. 저마다의 독특한 주제로 동네와 사람, 그리고 동네 속의 사람과 사람을 이으며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를 꿈꾸기도 했다. 특히 기존의 딱딱한 판형의 책자가 아니라 소량으로 제작해 원하는 대로 표현하는 '진 zine'의 형식을 따라 더욱 자유로운 매거진을 만들 수 있었다.

개성 넘치는 열두 팀의 커뮤니티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찾고 있고, 또 가지고 있기도 했다. 어렸을 적부터 거주한 양천구에서 추억의 장소와 향을 찾기도 했고, 이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어른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팀도 있었다. 용왕산을 탐구하고, 양천구의 소상공인 가게에서 구매한 음식을 가지고 피크닉을 떠나며, 양천구 내 비건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하는 낯선 기분에 설렘을 느꼈다.

이 톡톡 튀는 팀들은 다시 '이다', '잇다', '있다'의 세 매거진으로 모였다. 양천이 가진 이슈를 탐색하거나 발로 뛰는 '이다', 양천의 사람과 시간, 기억을 서로 맞잡게 하는 '잇다', 그리고 양천의 공간을 중심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하는 '있다'까지 또 다른 개성으로 연결되었다. 매거진의 이름 앞 목적어인 '무엇'을 채우기 위해 두 번의 워크숍과 전문가 컨설팅까지 거치며 열정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매거진이 완성되었을 때는 지역 이야기가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다는 것에 모두가 놀랐다. 선명하고 풍부한 이야기로 양천구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와 흥미를 전했던 '이다', 따뜻하고 다정한 대화로 가득 채워진 '잇다', 사진관 봉투 콘셉트로 예쁘게 써 내려간 엽서 같았던 '있다'까지, 모두 많은 고민과 열정이 느껴졌다. 이렇게 완성된 매거진은 양천구 관내의 도서관에 비치되었으며 지역 독립서점과 문화예술공간에서 특별한 전시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매거진은 딱딱한 지역을 '친숙한 동네'로 바꾸었다. 그 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낯설게 보기'다. 매일 익숙하던 공간이 새롭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으며 동네에 대한 애정 어린 호기심이 피어오른다. 이를 가득 담은 열두 팀의 이야기는 매거진의 완성과 함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자신만의 시선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이야기는 독자로부터 양천구를 향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따스한 공방의 시 간

공방은 예술가의 작업실이자 교육 및 체험 현장, 그리고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다. 목동에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공방들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남을 갖고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 이번 호의 양천문화지도에서 안내하는 공간 중에서 목동의 공방 6곳을 소개한다.

캔들&비누

프롬디센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49 해피빌 / 070-4656-6225 / @fromthescent

'향기로부터'라는 의미의 프롬 디 센트(From the Scent)는 이름처럼 방향제와 비누, 캔들 등 향기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공방이다. 2015년부터 목동에서 다양한 클래스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출강도 하고 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증반을 비롯해 캔들 원데이클래스, 비누 원데이클래스 등 원할 때마다 예약을 통해 캔들과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좌도 있다. 특히 부케의 꽃을 건조해 캔들이나 고체 방향제로 만드는 부케 플라워는 선물 아이템으로 인기. 직접 원하는 모양의 비누를 만들어 선물하려는 이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아로마

DIY CAFE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0길 21 1층 / 0507-1321-3203 / @diycafe_ar

바리스타와 조향사 자격증을 가진 주인장이 운영하는 아로마 공방이자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다. 2014년 오픈한 이곳은 캔들, 천연비누, 방향제, 향수 클래스를 운영하며 주말에는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소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예약을 통해 일대일로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왁스 타블렛이나 디퓨저 등을 만드는 방향제 클래스와 캔들 클래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수제명함꽂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원하는 스타일로 주문제작을 할 수 있다.

식물

담다

양천구 목동 527-19 / 0507-1334-7680 / @damda1004

반려식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담다는 지난해 봄, 염창역 근처에 오픈한 식물 공방이다. 식물, 다육식물, 다육 식물아트, 화분 등을 판매하며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유리볼에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테라리움과 다육식물로 작품을 만드는 다육아트, 가드닝을 배울 수 있으며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자격증 수업도 있다. 다육아트1급 지도사, 코르크원예지도사, 테라리움 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이현미 원장이 일대일이나 그룹 클래스를 진행하며 4명 이상의 인원이라면 출강을 하기도 한다.

자수&소품

자수공방에트

양천구 목동동로 293 2515호
0507-1375-4900 / @ette_etre

프랑스 자수를 배울 수 있는 자수공방이다. 수강생들을 상시모집하고 있는데, 자수를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20~25가지의 자수 기법을 배우는 스티치북 수업과 자유롭게 스티치를 활용하는 꽃자수 수업,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작품을 만들어 보는 수업 등을 운영한다. 자수를 한 번 체험해보려는 이들을 위한 원데이클래스에서는 파우치나 가방에 수를 놓는 등 원하는 것을 만들어볼 수 있으니 자수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먼저 상담을 해보길 추천한다. 자수용 프린트 원단을 비롯해 자수에 필요한 재료도 판매하고 있다.

보자기포장

가온보자기

양천구 목동동로 293
0507-1384-9920 / @bojagi_gaon

무언가를 포장하는 것이 곧 예술적인 활동이 되는 것, 보자기포장의 매력이다. 예단포장과 보자기포장 전문 공방인 가온보자기는 선물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자기 포장 수업을 진행한다. 원단과 매듭에 따라 다른 느낌이 연출되는 포장법을 배울 수 있는데, 취미반과 원데이클래스 외에도 보자기 포장에 담긴 의미와 예절을 비롯해 다양한 상황에 맞는 포장법을 배우는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다. 포장대행을 해주거나 예단 보자기를 판매하기도 한다.

프랑스 가정식&디저트

아뜰리에 101

목동중앙서로8길 14 2층
0507-1312-1936 / @_atelier_101

프랑스 리옹에 거주하며 현지 베이커리에서 경험을 쌓은 주인장이 운영하는 프랑스 음식 공방이다. 2019년 한국에서 디저트 숍을 오픈한 뒤 올해 4월 양천구로 이전하며 마련한 공간으로 프랑스 가정식과 디저트를 강의한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랑스 가정에서 흔히 먹는 음식인 토마토팍시와 바질페스토, 키슈 등을 배울 수 있고 레몬타르트와 마들렌 등 디저트클래스도 인기다. 연말처럼 특별한 시기에는 시즌 메뉴 강의도 진행한다. 함께 즐겁게 만들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양천 문화 캘린더 2022-2023

제여란 개인전 <Road to Purple>

스페이스K 서울

코오롱의 문화예술 나눔공간인 스페이스K 서울에서는 1월 19일까지 제여란 작가의 개인전 <Road to Purple>을 개최한다. 30여 년간 추상 작업을 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보라'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색에 대한 실험을 했다. 회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며 보랏빛 회화로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문의 02-3665-8918

1

제여란,
'Usquam Nusquam'
Oil on canvas, 2020

- 1. 19

제2회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

파리공원, 안양천

양천구는 12월 초부터 파리공원과 안양천에서 제2회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을 개최 중이다. 2023년 1월 31일까지 열리는 이 페스티벌은 파리공원의 특징을 잘 살리는 무드등, 수목 조명 등을 설치해 이국적인 겨울밤을 선보인다. 안양천 수변산책로(신정교~오목교)와 장미원에도 1100여 개의 스트링 조명을 설치해 낭만 가득한 산책길을 조성했다. 문의 02-2620-4567

2

©양천구청

- 1. 31

뮤지컬 <영웅>

LG아트센터 서울

지난 10월, 마곡으로 이전하며 새롭게 개관한 LG아트센터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영웅>을 개최한다. 2009년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이 작품은 16회 한국뮤지컬대상 6관왕에 오르는 등 수상기록도 화려하다. 초연 후 9번째 시즌을 맞는 이번 공연에는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이 안중근 역할을 맡아 열연하며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1577-3363

3

12. 21 - 2. 28

뮤지컬 <가루가루 얍>

갈산문화예술센터

다양한 자연 소재를 사용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펼치는 이영란 작가의 오브제 뮤지컬 <가루가루 얍>은 밀가루를 활용한 공연을 선보인다. 호기심을 가진 아이가 다가갈수록 고유한 성질을 드러내는 '하얀 가루'는 아이들만의 세상을 만든다.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아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한다. 24개월 이상 관람할 수 있다.

4

12. 24 - 1. 14

어린이 뮤지컬 <꼬마눈사람>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

어린이뮤지컬 <꼬마눈사람>은 하얀 꼬마 눈사람과 엄마, 아빠 3명의 눈사람, 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하는 외로운 꼬마 악동 겨울이가 즐기는 신나는 겨울 이야기다. 눈사람과 겨울이의 장난 대결을 즐겁게 감상하는 한편 눈사람이 겨울이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지 예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문의 02-3219-5702

5

12. 31 - 1. 29

2023 새해 행복 선물전

갤러리블라썸

염창동 JK블라썸호텔 내에 자리한 갤러리블라썸은 다양한 미술 작품을 소개하며 지역 안에서 소통하고 있는 갤러리다.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2023년 계묘년을 맞아 1월에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선물 같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선영, 전봉열, 최명숙, 최란아, 한정미, 김복득, 이정연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6

1. 7 - 1. 31

조은선 개인전 <Nella Fantasia>

갤러리에

아티스트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는 갤러리에에서 조은선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부엉이나 삐에로 등 자신을 투영한 대상을 등장시키며 내면의 자아를 회화적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한다. '역할극'을 소재로 한 이번 전시에서 온전한 자신의 모습에 가까워지기를 희망하는 작가의 사유가 담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2663-7325

조은선
'Dreamer'

7

1. 24 - 1. 30

성연웅,
'한국사람-최고의 커플',
2절 종이위에 잉크, 2022

8

1. 28 - 2. 8

성연웅,
'한국사람-1967년생',
2절 종이위에 잉크, 2022

성연웅 초대전

구구갤러리

구구갤러리는 잉크로 그리는 펜화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 성연웅의 전시를 선보인다. 잉크와 종이가 지닌 물성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그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을 하나의 캐릭터로 변신시켰다. 개성 넘치는 인체 표현뿐 아니라 작가 특유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작품에서 삶에 대한 위트가 묻어난다. 문의 02-2643-9990

9

박은호, '금실빌라',
Acrylic on Canvas,
2018

신진작가 그룹전 <Flow.>

갤러리 리디아

새해에 주목할 만한 신진작가의 그룹전이 열린다. 갤러리 리디아가 준비한 5인의 그룹전에는 김근아, 혜미, 홍채연, 박은호, 김서영 작가가 참여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통해 각자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사랑과 휴식뿐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 외로움 등 삶의 다양한 감정을 작품에 담아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문의 02-2602-4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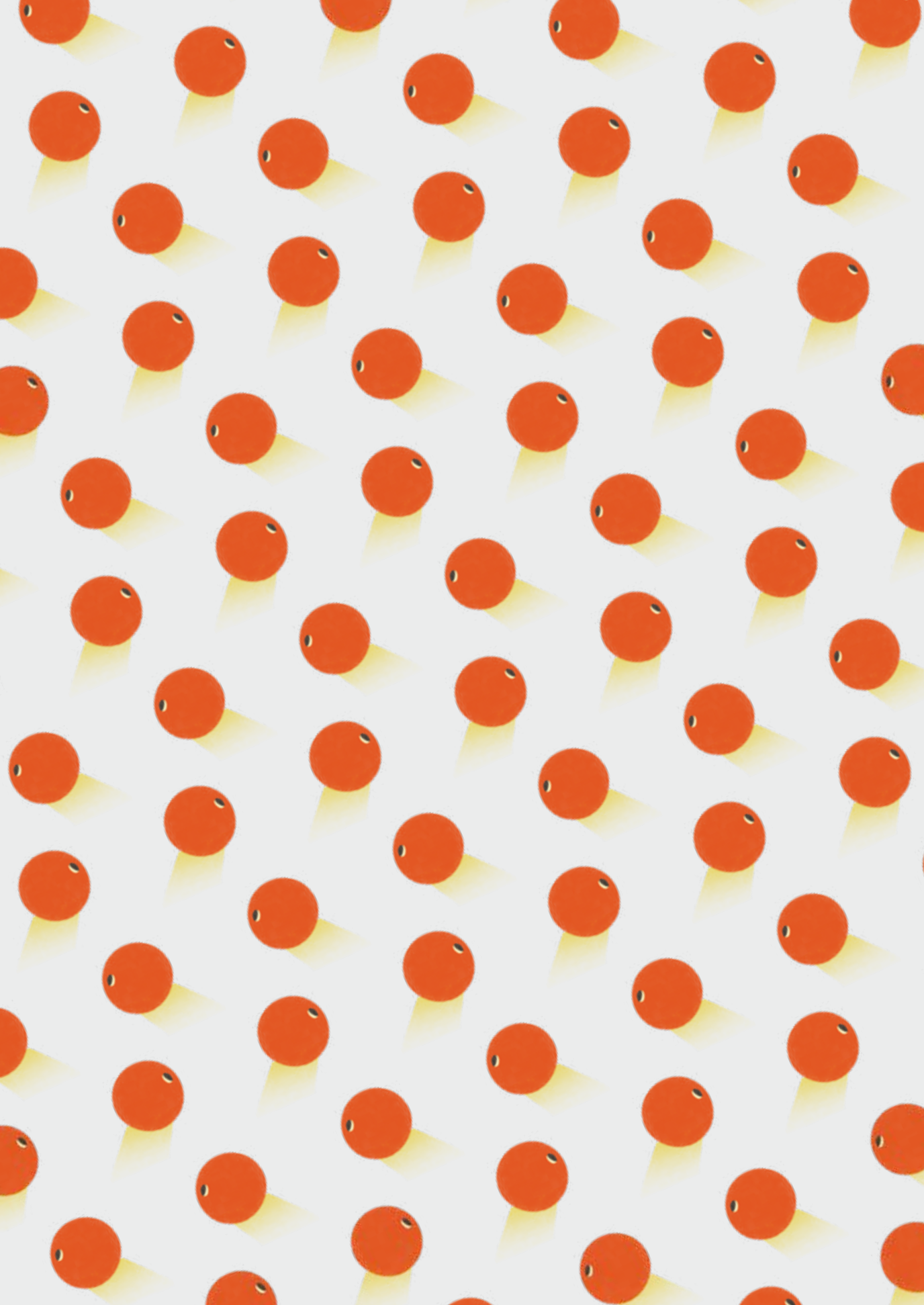
2. 16 - 3. 15

김서영,
'우리는 어디선가 다시 만나',
장지에 채색,
2021

모양모양 Vol.4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통권 제4호)	**발행인**	김신아
발행처	양천문화재단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별관 5층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02-2021-8944 02-6289-3009 www.yfac.kr iamsam@yfac.kr	**양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총괄**: 서원 **담당**: 박한샘 **기획 및 운영**: 서원, 손진영, 박한샘, 최보윤, 문소하, 전정우
편집장 **에디터** **사진**	안미영 최윤정, 전종현 황규백	**진행·디자인·제작** 글자와기록사이	**PM**: 이신재 **아트디렉팅**: 최혜진 **디자인**: 손서연 **도움**: 김보경

<모양모양>에 실린 글과 사진은 양천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천 문화 지도 vol 2. 목동

*양천 문화 지도 두 번째로 목동(강서구 인근)의 공간들을 소개합니다. (가나다순)
*방문시 전화, 홈페이지, SNS를 통해 운영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공예 공간

1. 패브릭아뜰리에띠앙스
주소: 서울 강서구 등촌로39바길 17 1층
전화: 0507-1360-6603
패브릭 및 에코레더를 이용해 가방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공예 공방

2. 오니라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63 201호
전화: 0507-1338-4066
향기로운 비누, 캔들, 아로마테라피 등을 만드는 조향 공방

3. 프롬디센트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49 해피빌
전화: 070-4656-6225
캔들과 비누수업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동캔들 & 비누 작업실

4. DIY CAFÉ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0길 21 1층
전화: 0507-1321-3203
캔들, 천연비누, 디퓨저 등을 만드는 공예 공방. 원데이클래스 상시 운영중

5. 담다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 527-19
전화: 0507-1334-7680
식물, 다육식물, 다육 식물아트, 화분 등을 판매하고 테라리움 수업도 진행하는 공방

6. 제이피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6 지층
전화: 0507-1384-5791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핸드백 제작사이자 가죽 공예공방

7. 오티움프랑스자수아뜰리에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2길 22 한신청구 상가 3층 315호
전화: 0502-1900-0282
프랑스자수, 기본자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수 공방

8. 자수공방에트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2515호
전화: 0507-1375-4900
프랑스자수, 소품만들기, 크로스스티치 등 자수 작업장과 교육장을 겸하는 수공예 공방

9. 마음핸드웍스
주소: 서울 강서구 등촌로3나길 2 1층
전화: 0507-1326-2846
다양한 가죽소품을 판매하고 정규수업과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는 가죽공예공방

10. 데이지수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5 목동 파라곤 109동 106호
전화: 0507-1310-6042
핸드메이드 장신구, 소품를 만들고 수를 놓는 수공예 공방

11. 더수다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전화: 0505-272-8752
소이캔들과 천연비누를 판매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수공예 공방

12. 가온보자기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전화: 0507-1384-9920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단포장 & 보자기포장 전문공방

13. 아뜰리에 101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8길 14 2층
전화: 0507-1312-1936
프랑스 디저트와 가정식을 배울 수 있는 프랑스 食공방

14. 화윤공방
주소: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4길 37 2층
전화: 070-8098-8604
화과자와 양갱을 판매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화과자공방

미술 공간

15. Atelier de Yeon
주소: 서울 강서구 등촌로39가길 3 1층
전화: 02-6369-8924
크로키, 드로잉, 아동미술 등 회화 수업을 하는 아뜰리에

16. 그림그리고
주소: 서울 양천구 등촌로 74 1층
전화: 0507-1307-6997
캘리그라피, 펜 드로잉 수채화, 보태니컬 아트, 인물화, 아크릴화 작품 판매와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는 공방

도자기 공간

17. 나우도예공방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길 138 102호
전화: 010-4229-1542
그릇과 도자기 소품을 직접 빚어 만들며 흙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도예공방

18. SJ ceramics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4가길 34 B01
전화: 0507-1361-7998
물레를 이용해 다양한 그릇을 빚어볼 수 있는 도자기 공방. 아동과 성인 대상 원데이클래스 상시 운영

19. 사루세라믹스튜디오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2길 22 한청종합상가 2층 258호
전화: 0507-1311-5779
그릇부터 소품, 오브제 등 다양한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공방

20. 노랑그릇도예공방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77 현대월드타워 1408호
전화: 02-2644-1152
흙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창작의 기쁨을 공유하는 도자기 공방

21. 소소도예공방
주소: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6길 28 101호
다양한 도자기 그릇과 소품을 판매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자기 공방

22. 메이코피스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3길 12 2층 MKOP
전화: 0507-1348-3759
프라이빗 클래스로 도예를 체험할 수 있는 도자기 공방

23. 하이엔드포슬린아트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전화: 0507-1364-5485
도자기 페인팅, 전사지 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포슬린도자기 공방

24. 미우스튜디오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77
전화: 0507-1333-7774
그릇과 토분, 색소지 접시 등을 만들 수 있는 도자기 공방

25. 토연가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23 2층 201호
전화: 0507-1354-8632
핸드페인팅 등 각종 도예체험을 할 수 있는 도자기 공방

목공 공간

26. 그날의나무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36 B01
전화: 0507-1317-6691
피스나 못이 아닌 짜맞춤 방식으로 가구를 만들고 수업도 진행하는 목공방

27. 바이핸드우드워킹 목공방
주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4길 9 지층2호
전화: 0507-1316-4551
수공구를 이용해 직접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는 목공방

28. 올드우드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지하1층 4호
전화: 070-4333-0888
짜맞춤 목공작업자의 공유공간이자 매주 목요일 목공 수업을 진행하는 목공방

독립 서점

29. 꽃피는책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58
전화: 0507-1306-0858
생태문학 도서와 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독립책방

30. 집사의책장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38 롯데캐슬위너상가 1층 105-2호
전화: 0507-1328-1867
문화기획서로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독립서점, 출판, 전시, 클래스, 대관 등의 사업 진행

31. 꼬리달린책방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 536-11
전화: 02-6052-0620
다양한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독립책방

복합문화 공간

32. 구구갤러리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9길 30
전화: 02-2643-9990
다양한 큐레이션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 갤러리

33. 살롱드파리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63 파리공원 내 통유리 건물
전화: 010-9688-0596
파리공원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시 및 공연 진행

34. 용왕산작은책쉼터
주소: 양천구 목동중앙로9길 40
전화: 02-2620-3570
용왕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작은책쉼터로 아동도서와 문학, 인문 등 670여 권의 책이 비치된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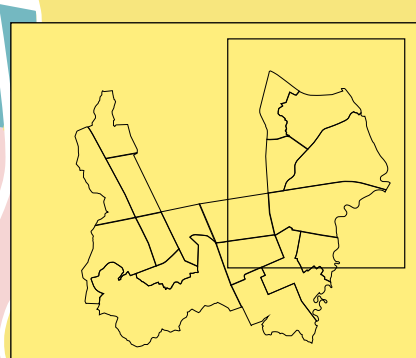
35. 파리공원책쉼터
주소: 양천구 목동동로 63
전화: 02-2620-3570
파리공원에 위치한 책쉼터로 24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프랑스 도서도 볼 수 있는 문화공간

양천 문화 지도

vol 2. 목동

강서구

1 패브릭아뜰리에띠앙스
30 집사의책장
2 오니라
25 토연가
6 제이피
15 Atelier de Yeon
모양모양 4호 담다 5
4 DIY CAFÉ 모양모양 4호
소소도예공방 21
31 꼬리달린책방
나우도예공방 17
그날의나무 26
7 마로아제이
29 꽃피는책
모양모양 2호
7 오티움프랑스자수아뜰리에
19 사루세라믹스튜디오
18 SJ ceramics
3 프롬디센트
모양모양 4호
34 용왕산작은책쉼터
모양모양 3호
16 그림그리고
20 노랑그릇도예공방
24 미우스튜디오
33 살롱드파리
35 파리공원책쉼터
모양모양 3호
32 구구갤러리
22 메이코피스
13 아뜰리에 101
모양모양 4호
9 마음핸드웍스
14 화윤공방
10 데이지수
모양모양 4호 자수공방에트 8 11 더수다
모양모양 4호 가온보자기 12 23 하이엔드포슬린아트
28 올드우드
27 바이핸드우드워킹목공방



공예 공간
미술 공간
도자기 공간
목공 공간
독립서점
복합문화 공간